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운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13호

Wednesday, May 8, 2024 A

우일연, 한인 작가 첫 풀리처상

한인 2세, 비보도 부문 수상
19세기 흑인노예 부부 실화 그린
『주인 노예 남편 아내』로 영예
선정위 “자유로 가는 여정 잘 그려”

한인 작가의 논픽션(비소설)이 풀리처상을 받았다. 미국 풀리처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는 6일 『주인 노예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를 쓴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를 제108회 전기(傳記)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다룬 조나단 에이그의 평전 『킹: 어 라이프』(King: A Life)가 공동 수상했다.

한인 인사가 비보도 부문에서 풀리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작가는 미국 국적의 한인 2세로 예일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부친은



한인 우일연 작가의 책 『주인 노예 남편 아내』(작은 사진)가 풀리처상 전기 부문을 받았다. 큰 사진은 우 작가가 미국 뉴버리포트의 한 서점을 찾은 모습. [사진 우일연 작가 인스타그램]

환기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설계한 재미 건축가 우규승 씨다.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흑인 노예 부부가 백인 농장주와 노예로 위장해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로 탈출을 감행한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부부 중 아내인 엘렌 크래프트는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나 피부색이 얼었기 때문에 병약하고 젊은 백인 농장주로, 남편인 윌리엄 크래프트는 엘렌의 노예로 각각 위장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우 작가는 아들이 남긴 책과 각종 자료를 뒤져 부부의 삶과 노예 해방 투쟁의 역사를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책에 대해 “여자가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아내 엘렌에 대한 역사 기록이 충분치 못했는데, 얼마 안 되는 이 기록물을 면밀히 들여다 보며 엘렌 크래프트의 관점으로 세심하게 써 내려갔다”고 평했다.

선정위도 “성별·인종에 따른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역으로 활용해 노예제에서 자유로 가는 서사적 여정을 자세히 그렸다”고 평가했다.

우 작가는 2010년 내놓은 『위대한 이혼(Great Divorce)』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은 1818년 뉴욕주에서 최초로 여성의 이혼과 재산, 양육권을 쟁취한 유니스 채프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여성에게 재산권도 시민권도 없던 19세기 미국에서 채프먼이 5년간 남편과 국가를 상대로 벌인 5년 간의 법정 투쟁을 따라가며 당시 미국의 법, 종교, 정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

▶4면 '우일연'으로 계속 김민정 기자

재벌후보 선거자금 신기록

트론 MD 연방상원 후보
선거운동 예산 '5400만불'

데이빗 트론 연방하원의원(민주, MD·사진)이 연방상원의원 선거를 위해 사재 5410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론 의원은 4월1일부터 24일까지 집행한 선거자금만 1235만달러에 이른다. 미국 선거 역사상 사재 출연 최대 액수 기록은 릭스콧 연방상원의원(공화, FL)이 2018년 선거에서 쓴 6300만 달러다.

트론 의원은 6월 민주당 예비경선을 앞두고 안젤라 울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래리 호건 전 주지사(공화)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재 출연 액수는 더욱 늘어나 결국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론 의원은 2022년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995만달러에 이르는 사비를 지출한 바 있다.

▶2면 '재벌 후보'로 이어집니다 김욱재 기자



경찰, 숨진 한인에 여러차례 쏘다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남성 양용(40·사진)씨(본지 5월7일자 A1면)가 당시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가족의 진술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가족은 경찰의 현장 대응 절차와 방법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LA카운티검시소 측은 지난 2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씨의 사망 원인을 ‘다수의 총상(multiple gunshot wounds)’이라고 밝히면서 사망 방식



에 ‘살인(homicide)’이라고 기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LA카운티 검찰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 측은 본지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프로토콜에 따라 현장 경관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4월 성

명서를 통해 “사건 직전 양씨 집에서 경관들과 만난 LA카운티정신건강국(DMH) 직원 2명은 ‘양씨의 불규칙하고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다”면서 “양씨가 DMH직원 중 한명을 폭행하려고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DMH측은 양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LAPD 측은 경관들이 집에 올라갔을 때 “양씨는 몇 피트 떨어져 거실에서 큰 주방칼로 무장한 채 서 있었다”며 “잠시 후 양씨는 경관쪽으로 걸어왔고 경관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

혔다. 이에 대해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DMH 직원은 내 등 뒤에 서서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내 아들이 DMH 직원들을 폭행하려고 전했다고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민씨는 설사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DMH의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했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본인 및 DMH 직원들과 사전 대화를 나눴음에도 총을 겨누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민씨는 “경찰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총소리가 나기까지 불과 2분 30초

가 걸렸다. 준비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아픈 자녀를 병원에 이송을 위해 경찰에 도움을 청하겠나”라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정부기관 소송 전문 변호사는 “경찰 연루 총격 사건(OIS·Officer involved shooting)에서는 경찰이 총을 발포할 만큼 느낀 ‘즉각적 위협’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테이저건처럼 비상살무기를 사용한 시간도 없을 만큼 위협적인 공격이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바디캠 공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Allianz, Athen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ISW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내 차에 트럭 타이어 잔해 날아와 상해 입는다면?” 법률 사각지대, 트럭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 없어

SPECIAL STORY

주행중인 트럭에서 타이어 등 잔해물이 다른 차량을 덮쳐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IT 전문가인 소냐 터커(VA 페어팩스 거주)는 지난 2022년 7월1일 66번 고속도로 동쪽방향을 주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대형 트럭의 타이어 잔해물이 자신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덮치는 대형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터커의 차량은 여러차례 회전하다 간신히 멈춰 섰으나 일곱 군데 이상 골절상과 뇌출혈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5주 이상 휴식 상태로 놓여있다가 깨어났다. 퇴원 후에도 심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작장을 그만두야 했다.



버지니아 주립경찰국은 트럭운전기사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구간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목격자들도 트럭의 정확한 외관과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속절없이 병원은 계속 누적되고 있으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트럭운전기사를 찾

지 못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사고청구를 위한 소멸시효를 7월말로 통보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설령 트럭운전기사가 트럭 잔해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잔해물이 주행 중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트럭운전기사는 자신의 트럭 운송회사 측에 장비 등 부착물 분실 신고를 하면 그만이지만, 운송회사 측도 제대로 기록 관리를 하지 않는다.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 협회(FMCSA)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트럭에 연루된 교통사고로 인해 6천명 가까이 사망했다. 이중 트럭 잔해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6%, 부상자는 전체 부상자의 4.4%를 차지했다.

한편, 연방의회 차원에서 차량대인 보상 최저한도를 75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김욱재 기자

▶1면 '재벌 후보'에서 이어집니다.
트론 의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주류 소매체인 업체 '토탈 와인 앤 모어'의 창업주로 선거자금의 구매를 받지 않는 재벌이다. 토탈 와인 앤 모어는 1991년 창업 이후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210개의 소매점을 거느리고 있으며 고용 인원이 7천명이 넘는다. 재정 컨설팅업체 머니우와이즈닷컴에 의하면 트론 의원의 순자산은 3290만달러로 연방상하원의원 535명 중 17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억달러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주류 판매업체 토탈 와인 앤 모어의 가치는 3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2018년 처음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350만달러를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직접 출연한 돈이었다. 그는 “정치행동위원회(PAC)와 로비스트, 부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내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내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욱재 기자

“버지니아는 뉴욕과 다르다”

VA 검찰총장 제이슨 미야레스
UVA 친팔 시위 진압 정당화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버지니아 대학(UVA) 내 팔레스타인 동조 시위를 진압하고 학생들을 체포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립경찰국과 샬롯츠빌 경찰국은 UVA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와 대치 끝에 25명을 체포했다. 이밖에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등 버지니아 내 대학에서만 125명 이상이 체포됐다.

미야레스 총장은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버지니아는 뉴욕이 아니다”면서 “버지니아는 뉴욕과 다른 주지사

와 검찰총장이 있기에 우리는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은 처근 벌어지는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촉발된 곳이다. 뉴욕 경찰당국은 산발적인 시위 단속을 벌이긴 했으나 전면적인 시위 진압을 계속 미루고 있다. 급기야 콜럼비아 대학은 졸업생 전체가 참석하는 졸업식을 취소하고 단과대학별 소규모 졸업행사를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모 졸업행사를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학가 시위로 인해 3천명 가까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UVA와 함께 조

지위성된 대학에서 수백여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야레스 총장은 “학생들의 행동은 철없는 방종”이었다고 규정하고 “버지니아 경찰은 이번 사태를 펜타닐 불법 마약 사태

처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또한 “경찰은 시위학생들의 불법 야영지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검문을 진행하고 무기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검사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무기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지니아 경찰당국은 대학 내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외부인에 대해 한층 강화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야레스 총장은 “외부인들이 학생 시위를 지휘하며 더욱 극단적인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물병을 무기로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욱미 기자

데이터센터는 ‘전기먹는 하마’

VA 등 전국적 규제 움직임

버지니아 라운드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에 데이터 센터 붐이 일며 막대한 세금수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결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있으며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센터 증가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난다면 2050년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계획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면서 민간업체를 고용해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은 17기가와트이지만, 2030년에 이르면 두 배 이상인 35기가와트로 늘어나게 된다.

인공지능과 자동차 자율주행 등 막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와 보관을 위해

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며 그 용량을 무한 증식해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대용량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전기요금 요율을 내려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과 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 의회는 데이터센터에 주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을 제정했다.

존 알버스 상원의원(공화)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당장은 세금수입이 증가해 좋지만, 결국에는 전기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환경 제약의 원흉이 된다”고 밝혔다.

비영리 정부감시단체 굿잡스 퍼스트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데이터센터 직원 1명 고용당 200만달러에 이르는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9일(목)	81-60	12일(일)	69-52
10일(금)	71-52	13일(월)	76-61
11일(토)	66-52	14일(화)	79-58

5월 8일(수) 87~6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3 - 6/7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만나셨습니다

페어팩스 한인교회 양광호 목사

페어팩스 한인교회(동사목사 양광호, 최일승)가 숨찬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뜻깊은 헌당예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목사는 자신의 주택 터를 교회에 헌납하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지난 한 과정을 홀로 감당해 왔다고 전했다.

양광호 목사는 1992년 당시 신도 숫자가 7~8명에 불과했던 페어팩스 한인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해 개척 아닌 개척 목사의 길에 접어들었다.

양목사는 힘들었던 교회 건축과정을 설명하면서 “교회 건축물을 위해 살던 집을 담보로 여러차례 융자를 얻고 목사관 2층에 살림집을 옮기기도 했으나 교회를 통해 사익편취 행위를 한다는 악의적 루머 때문에 큰 시련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목사가 월드미션 칼리지를 운영하며 비자 장사를 해 돌려막기 한다”는 악의적 루머로 인해 비윤리적 목사로 매도돼 300여명이던 교인이 100여명으로 줄어들어 경제적 고

난을 겪기도 했지만 1992년 8월 이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새벽예배를 인도하며 간구한 결과 차츰 회복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250만 달러 모기지과 다운페이먼트 50만달러를 포함 총 300만 달러를 완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교회 건축은 1998년 시작해 2021년 에야 마무리하고 모기지는 작년 10월에 완납했다. 1956년생인 양광호 목사는 내년 8월 안식년에 들어간 후 원로목사로 추대돼 사실상 마지막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다.

월드미션 칼리지 총장을 겸하고 있는 양목사는 연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1982년 도미한 후 뉴욕 신학교(M.Div.), 프린스턴 신학교(Th.M.),



양광호 목사(왼쪽)와 최일승 목사

“분열·고난 딛고 맞는 감동의 헌당예배”

트리니티 칼리지 신학교(D.Min.), 카톨릭 대학교(조직신학 Ph.D. 수료), 영국 리버풀 대학교(조직신학 Ph. D.)를 거쳤다.

양목사는 워싱턴 교회협의회와 워싱턴 교역자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워싱턴 성문교회와 통합해 동사목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양광호 목사가 은퇴하면 최일승 동사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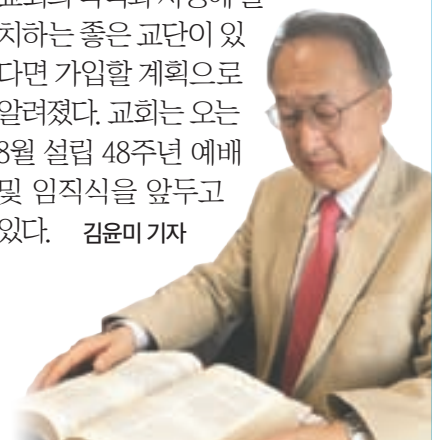
최일승 목사는 “양 목사님의 헌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목사는 1970년생으로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예방합동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리버티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을 마치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서울장로교회 교육목

사, 워싱턴한인장로교회 교육 목사 및 부목사, 세계은혜교회 담임목사, 로넨장로교회 담임목사, 워싱턴성문교회 담임목사, 워싱턴 교역자회 회장과 워싱턴목회연구원 회장을 지냈다.

페어팩스 한인교회(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의 헌당예배는 오는 19일(일) 오후4시에 예정돼 있다.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었으나 교단 탈퇴 후 2017년부터 독립교회로 남아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일치하는 좋은 교단이 있다면 가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오는 8월 설립 48주년 예배 및 임직식을 앞두고 있다. 김윤미 기자



봉사로 실천한 '나눔'의 의미

지난 4일 글로벌 어린이재단 워싱턴 디씨지부(이미미 회장)는 메릴랜드 락빌 소재 밀알 선교단에서 김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만두, 김치, 나물, 롤케익, 수박 등 회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점심봉사를 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전해왔다.

소득세 환급 평균 2850불

개인 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달 19일자 기준 세금보고 누적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850달러로 지난해 4월 21일자 기준 2753달러보다 3.5% 늘어났다. (표 참조)

총 환급액도 2452억2600만 달러로 지난해 2366억6150만 달러보다 3.6% 증가했으며 환급 건수는 8605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0.1% 소폭 늘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환급된 건수는 전체 환급 건수의 93%에 달하는 8002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계좌 이체 환급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한 2358억 18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6.2%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수는 1인당 2947달러로 4.2% 늘었다.

총 접수 건수는 1억391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가운데 전자접수도 1억3451만1000건으로 1.9% 늘어났다. 전체 접수건 중 전자 접수가 차지한 비율은 96.7%에 달했다.

박낙희 기자

소셜 시큐리티 2033년 고갈

연금 수혜액 21% 감축

연방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수혜액은 21% 줄어들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중 장애연금은 별도 관리돼 2098년 고갈되지만, 은퇴연금과 장애연금을 합산하더라도 고갈시기가 2035년이다. 메디케어는 작년에 비해 5년 늘어난 2036년 고갈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병원 커버리지가 11% 줄어들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페이롤 택스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2024년의 경우 최대 16만8600달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6.2%씩 페이롤 택스로 납부한다. 자영업자는 12.4%를 모두 부담한다.

현행 메디케어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1.45%이며 전체로는 2.9%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셜 시큐리티 페이롤 택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급여의 7.65%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오바마케어 법률에 의해 0.9%의 메디케어 텍스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연소득 16만8600달러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메디케어 텍스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텍스 세율을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6.2%씩 총 12.4%에서 3.44%포인트 인상한 15.84%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Advertisement for OMNI insurance services, including life, health, and auto insurance. Contact: 1-866-915-6664.

Advertisement for Kim Jin-uk, a specialist in neurology and stroke. Contact: 703-691-3111.

Advertisement for Metro City Bank, offering SBA, USDA, and mortgage loans. Contact: 571-490-7655.

Advertisement for Top Travel USA, a travel agency. Contact: 703.543.2322.

Advertisement for Kie D. Lee, DDS, MD, a dental implant specialist. Contact: (703)569-8000.

Large advertisement for lawyers Erik Jurgensen and David Marks, specializing in criminal law and traffic acciden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David Marks Law, featuring Connie A. Yoon and offering a free accident guide. Contact: 703.385.1100.

공금형령 대한항공 전 직원 연방법원 41개월 실형선고

회삿돈 6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전 매니저(본지 2023년 5월18일자 A-1면)에게 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원 판지법은 6일 황성필(39)씨에게 은행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41개월과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61만5271.51달러 배상도 명령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국제공항내 대한항공 관리사에서 근무하면서 여객시설 이용료(PFC) 6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다. PFC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공항 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항공사가 대신 받아 납부한다.

황씨는 대한항공이 PFC 지급용으로 발행한 회사수표 350만달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광 공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사취했다.

황씨는 회사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텍사스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김경준 기자



‘마더스 데이’ 쿠쿠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쿠의 베스트셀러인 밥솥과 공기청정기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안마의자도 최대 1,500달러 혜택과 LED 마스크 증정까지 제공된다. 또한,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쿠쿠 시그니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복수 렌탈하는 고객에게는 최고급 밥솥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혜택이 준비됐다.

쿠쿠 측은 “가정의 달을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준비하여, 소비자 분들께 5월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힘썼다”고 밝혔다.

5월 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쿠쿠 아메리카(cuckooamerica.com)와 쿠쿠 렌탈(cuckoorent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 매년 2명꼴로 경관 총격에 사망

2000~20년 사이 총 42건 남성 88%, 평균연령 38세 절반이 거주서 목숨 잃어 LAPD 관련 사건 500여건

범죄 신고는 아니었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 직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양용(40)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LA경찰국(LAPD)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관들은 이미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들과도 사전에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도 경관들은 양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한인은 지난 20년(2000~2020)간 전국에서 총 42명으로 나타났다. 매해 약 2명의 한인이 양씨와 같이 경찰 총격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는 본지가 USC 브라이언 버그하트 연구원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fatalencounters.org)에서 추출한 자료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만 취합하고 있다.

한인 사망자들의 사례만 따로 분석해봤다.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가장 최근은 지난 2020년 1월 21일 워싱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조씨의 모교인 UCLA에서 지난 2008년 1월 추모식이 열렸다. 김상진 기자

주 레이시 지역에서 서스톤카운티세리프국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손석진(60)씨다.

손씨는 당시 이른 오전에 집 밖에서 세리프 요원에게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칼을 꺼냈다가 이후 총격으로 인해 숨졌다. 조사는 보류 중이다.

주별로 보면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한인은 거주에서 가장 많았다. 총 22명이다. 한인에게 총을 쏘 숨지게 한 경관 총격 사건 2건 중 1건(52%)이 거주에서 발생했다. 거주는 지난 20년 간 경관 총격 건수(4700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다. 이는 텍사스주(2601건), 플로리다주(1788건)보다 많다.

거주에서 발생한 대표적 경관 총격 건은 마이클 조(당시 25세) 사망 사건이다. 당시 2007년 마지막 날(12월31일) 라하브라 지역 리커스토어 앞에서 ‘무기를 든 사람이 서성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씨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당시 조씨가 들고 있던 것은 ‘무기’가 아닌 ‘쇠 지렛대(crowbar)’였다. 당시 경관들은 조씨에게 쇠지렛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정

신질환을 앓던 조씨에게 11발이나 집중 총격을 가했다.

이후 한인사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 시위까지 진행했다. 이후 유가족은 부당한 사망, 과실 등을 주장하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5만 달러에 합의했다.

경찰 총격 때문에 숨진 한인 사망자는 대부분 남성(37명)이었다. 전체 한인 사망자 중 88%에 이른다. 한인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38세였다. 이번에 LAPD 경관에게 피격당한 양씨(40세)와 엇비슷하다.

경관 총격에 의한 한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5년(7명)이었다. 데이터 베이스에서 취합한 가장 최근 5년(2016~2020)만 추려본 결과 7명의 한인이 경관 총격 때문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계 사망자는 총 544명이다. 한인 사망자는 이중 약 8%에 해당한다.

한편, 데이터 베이스에는 경찰 총격 등에 의해 숨진 2만9423명의 자료가 있다. 이중 LAPD가 관련된 사건은 약 500여건이다. 장영기 기자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자 빌 황 형사재판 8일 개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을 흔든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한국명 황성국·사진)의 형사재판이 오는 8일 미국에서 개시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8일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황씨의 사기 혐의 사건 재판 일정에 들어간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앞서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2022년 4월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황씨가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황씨 측은 월가의 일반적인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



제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황씨의 개인 투자 회사인 아케고스는 앞서 투자은행(IB)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및 차액거래(CFD) 계약을 맺고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던 중 투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이 발생했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빌 빠르게 담보주식을 불록딜로 내다 팔면서 손실이 확산했다.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로 투자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00억 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아케고스와의 거래로 맺은 손실 규모가 55억 달러에 달했고, 이 충격 여파로 위기실에 휩싸이다가 결국 자국 경쟁사인 UBS에 인수됐다.

이번 재판을 두고 월가가 비싼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황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시장조작 사건을 변호해온 로버트 프렌치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시장조작 행위는 속임수를 써야 하는데, 공개시장에서 이뤄진 아케고스의 주식 매입 행위는 기만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그러한 주식 매입 행위가 선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와 카네기멜런대 경영대학원(MBA)을 나온 그는 2001년 헤지펀드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이끈 유명 투자자 줄리언 로버트슨의 도움으로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출범했다.

황씨의 회사는 월가의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2012년 홍콩 투자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결국 4천400만달러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했다.

이후 2013년 그는 개인투자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한편 아케고스의 최고위험책임자(CRO)를 지낸 스콧 베커와 수석 트레이더 윌리엄 토미타는 금융회사를 속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1면 ‘우일연’에서 이어집니다

우 작가는 동료 작가들로부터 “역사의 단면을 현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탈바꿈 시키는 능력이 있다”(존 마테슨·2008년 풀리처 도서 부문 수상자), “소홀히 다뤄졌던 역사 기록을 꼼꼼히 연구해 설득력 있

게 서술하는 능력을 갖췄다”(너새니얼 필brick·논픽션 작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17년에 창설된 풀리처상은 뉴스와 보도 사진 등 언론 부문과 도서, 드라마·음악 등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국계 사진 기자가 언론 부문에서 풀리처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외 부문에서 한국계 인사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위는 이날 미 연방 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 소속

기자 5명을 대상적인 공공 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클라렌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의 자가용 비행기를 공짜로 얻어 탄 사실을 밝혀내 보도했다.

김민정 기자

KOREA UNIVERSITY
1905

고려대학교 워싱턴 교우회

봄 야유회

교우 여러분, 워싱턴 일원에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교우회에서는 5월을 맞아 봄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교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은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온 가족이 야외에서 워싱턴의 다른 고대 교우 가족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24년 5월 19일 (일) 낮 12시

◆ 장소 : Lake Fairfax Park (Tent G)

1400 Lake Fairfax Drive, Reston, VA 20190
(파크 게이트에서 우측 주차장 사용. 우천시에도 행사 진행합니다)

◆ 연락처 : 이기훈 (301-580-2693), 백승자 (410-900-5539)
E-mail: kualumni.dc@gmail.com

봄 야유회에 가족분들과 참석하시는 교우분들을 위한 게임과 경품 및 학업중인 젊은 교우들을 위한 상품권 추첨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워싱턴지부 회장 이기훈

아시아인 3명 중 1명만 미국사회에 소속감

38%로 모든 인종 중 가장 낮아 인종차별 경험 흑인 다음 높아

미국 내 아시아인 인구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아시아인들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지난 1일 아시아아메리칸연맹(AAF)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성인 62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인이 미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은 38%로 인종 중 가장 낮았다. 이 중에서도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은 18%로 더 낮았다. 인종별로는 미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백인(7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51%), 흑인(4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여전



히 만연한 인종 차별, 폭력 등을 꼽았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시아아메리칸 10명 중 6명(60%)은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흑인(72%)에 이어 인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히스패닉은 58%, 백인은 28%가 인종차별 경험을 이유로 들었다. 아

시안 37%는 '나와 같은 인종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을 이유로 꼽았고, 32%는 '타인종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아시아아메리칸 32%는 인종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29%는 언어적 괴롭힘이나 언어적 학대를, 14%는 신체적 공격, 19%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아메리칸 61%는 아시아인 그룹을 향한 혐오가 증가했다고 느꼈다.

또 절반 이상(57%)의 아시아아메리칸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집 근처·직장·학교 등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SNS에서 불

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1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16%는 집 근처에서, 15%는 직장에서, 15%는 학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 개선'을 꼽았다. 41%의 응답자는 'K-12 교육과정에 아시아아메리칸 역사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것'이 차별 문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으며, 또 다른 41%는 '아시아인 출연 TV쇼를 확대하는 등 미국 사회 내 아시아아메리칸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또 39%는 '아시아아메리칸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윤지혜 기자

80대 한인 극단적 선택 웨스트힐스 자택에서

80대 한인 남성 시니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LA카운티검시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용(85)씨가 웨스트힐스 세일 에비뉴 인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검시소 측은 현장에서 이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검시소와 경찰은 신고 및 사건에 대한 세부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자살 예방 등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 및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국(800-854-7771·한국어 6번), 한인가정상담소(213-389-6755), 이웃케어클리닉(213-235-1210) 한인타운청소년회관(213-365-7400)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H-1B 심사 대상 추첨 등록 급감

추첨 확률 높여 중복 신청 단속 강화하자 건수 크게 줄어

2024~2025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직전에 대비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H-1B 비자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

아지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첨 기준을 바꾸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에는 총 47만9953명이 등록했다. 2023~2024회계연도 당시 등록 건수(78만884명)보다 40% 줄어든 수준이



다. 연간 H-1B 비자 발급건수(8만5000개)를 고려하면 추첨 확률은 약 11%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졌다.

USCIS는 "여러 스폰서를 이용해 H-1B를 중복 신청하는 등 눈속임을 줄이기 위해 추첨 기준을 강화하자, 중

복 신청 건수가 줄면서 신청자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H-1B를 대거 신청했고, 특히 신청자들 중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지원 폼수를 쓴 경우가 많았다. 직전해 78만884건의 신청 건수 중 중복신청은 40만8000건에 달했다.

기업들이 답답해 한 지원자를 놓고 여러 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비자 권

설정 업체가 허위로 직원 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 지원자가 최대 80~90개 스폰서를 받아 H-1B에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USCIS는 올해 추첨에서는 스폰서 중심의 케이스별 비자 추첨이 아닌 신청자별 추첨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복 신청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없다 보니, 신청 건수도 감소한 것이다.

김은별 기자

IRS, 고소득 납세자·기업 세무감사 강화

"40만 달러 미만은 해당 안돼"

국세청(IRS)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 IRS는 최근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증액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무 당국은 10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납세자의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 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50% 더 확대한 것이다. 또 자산 규모가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감사 비율을 2019년(8.8%)보다 3배 이상(22.6%) 늘리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도 10배 더 간간해진다. 2019년 기준으로 0.1%였던 비율은 2026년 1%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IRS는 강조했다.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감사관



을 더 채용하고 세무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년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데니워렐 IRS커미셔너는 "IRS 감사관 증원, AI 활용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5억

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백만장자를 포함한 고소득 납세자의 세무 감사의 고배를 더 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2024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감사관 수를 전년 대비 55%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와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5%의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리조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스타벅스·맥도날드 충성고객 손절, 왜

가격 너무 올라 소비자 외면 식료품값보다 더 큰 폭 상승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격을 인상한 식품 회사가 시장에서 외면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26% 상승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가격은 33%나 꺾였었다.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힐스에 사는 변호사 데이비드 마이클(58)도 거의 매주 가던 맥도날드 탄산음료 가격이 1달러에서 1.69달러로 오른 것을 본 뒤 몇



인플레이션을 내세워 가격을 올리던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소비자가 외면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달째 가지 않고 있다. 이윤객 감소는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레비뉴매니저

트슬루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용객 감소는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맥도날드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2.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72달러보다 낮았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최근 소비 감소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맥도날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안 보든은 투자자 회의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를 거부하고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매장 방문객 수가 7% 급감

했다고 발표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4% 쪼그라들었다.

WSJ은 “과거엔 외식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주로 슈퍼마켓에서 대안을 찾았다면 이제는 일부 대형 식료품 업체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는 올해 1분기 매출이 1.2% 줄었다고 밝혔다. 감자를 재료로 하는 과자인 프링글스 제조사인 켈라노바는 북미 매출이 5% 감소했다.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에 기업도 반응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더 많은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의 발걸음을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양과 가격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브리프

구글 검색시장 점유 2%p 하락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검색 시장에서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점유율이 소폭 내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 세계 웹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92.82%)보다는 약 2%포인트(1.9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91.38%)보다도 0.4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근 12개월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93.11%)과 비교하면 2.20%포인트 떨어졌다. 구글이 여전히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지배력은 소폭 감소한 셈이다.

반면, MS의 검색 엔진 Bing의 지난 4월 점유율은 3.64%를 나타내며 1년 전(2.76%)보다 1% 가까이 올라갔다. 야후 검색 점유율은 1.13%로 작년 4월(1.11%)과 큰 변동은 없었다.

소니, 파라마운트 인수 추진

일본의 소니그룹이 사모펀드와 함께 미국의 대형 미디어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26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인합서를 파라마운트에 보냈다. 인수인합서상 조건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양측은 이를 토대로 인수·합병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파라마운트는 CBS 방송과 케이블 채널 MTV,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이다. 파라마운트는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적자 누적과 전통 케이블TV 시장에서의 시청자 감소 등으로 부채가 누적돼 경쟁 미디어 업체와의 합병설이 지속해 제기돼왔다.

파라마운트는 지배주주인 샤리 레드스톤 주도로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지난 수개월간 인수·합병 논의를 지속해왔다.

서유진 기자

버핏, 고리로 주식투자 둔화에 “좋은 공 왔을 때만 휘두른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사진)이 4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주식투자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5일 분석했다.

고금리가 요인으로, 이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19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버크셔는 4일 공시한 실적자료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과 예금, 미국 단기채를 포함한 광의의 수중자금이 18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버핏은 6월 말까지 2000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버핏은 향후 투자 기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좋은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두르겠다”며 “우리는 자금을 (신규 투자로) 돌리고 싶지만, 낮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전망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핏은 저렴한 우량주를 발굴하는 투자 기법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통화

긴축 장기화에 따른 단기금리의 상승이 그의 적중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지이신문은 단기채에서 얻은 금리 수입이 작년 7~9월부터 3분기 연속으로 보유주의 배당주 수입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뉴욕 증시가 2022년 가을 이후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한 적이 없으며, 금리와 주가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버핏류 투자’ 장애물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등한 주택 보험료에 집값 내릴 수도

2년간 19.8% ↑…평균 2522불 “가격 오름세 지연에 일조할 것”

주택보험에 대한 비용 상승세가 향후 집값 하락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보험비교 플랫폼 인슈리파이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주택보험 비용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19.8%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 비용은 올해도 6% 올라 연말에는 연평균 보험료가 2522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체는 이처럼 고공행진 하는 주택보험료가 집값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했다.

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요구한다”며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대출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보험료 상승에 따라 모기지 자격을 갖춘 구매자가 줄어들게 되기에 적절한 수요자를 찾으려면 가격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톨레인대학교의 제세 킨 교수는 “주택 구매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장기 운용 비용에 매우 민감하다”며 “보험료가 특히 높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험을 자본화하는 것”이라며 “서로의 위험을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루이지애나와 같은 일부 지역은 보험료가 집값을 다소 낮추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집값이 보험료 때문에 하락하기보다 상승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역할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MS,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불 투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인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재생 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AI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인데, 이런 센터를 가동하려면 충분한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MS는 글로벌 대체 자산 투자사인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브룩필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브룩필드는 이 계약에 따라 2026~2030년 미국과 유럽에서 MS를 위해 10.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와트는 1초 동안 소비하는 전력 에너지이며 기가와트는 10억 와트다. 10.5기가와트는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인 북 버지니아주의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전기차 등의 수요가 늘면서 전력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웰스파고 리서치가 발간한 보

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20% 급증할 전망이다.

전력 확보는 요즘 AI 기업들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데이터센터 증설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신규 데이터센터 한 곳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은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개발 기업들은 앞다퉀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찾는 에너지원은 핵융합, 태양광 등 다양하다. MS는 지난해 5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부터 매년 최소 50MW(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 핵융합 발전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헬리온 에너지는 핵GPT 개발사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2021년 3억75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다.

최근 태양광 스타트업 엑소와트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인 명단 가운데, 올트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



성명서

대한민국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기사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한 것은 당시 불순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켜 많은 지역 방위병 군인 학생들을 희생시킨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누구를 위해 한 일입니까? 국민을 위하여 한 일입니까? 아니면 오직 불순 세력을 위해 일어난 일입니까? 관공서와 많은 군경 학생들을 희생시킨 이런 단체를 민주화라 명명하여 국가에 많은 특혜와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작태! 이런 단체를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파렴치한 말 장난입니다.

우리 월남전참전유공자 전우는 전쟁터에서 죽음과 피와 눈물과 땀의 댓가로 받은 수당을 헐벗고 굶주린 조국 발전에 바쳐 지금 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쟁도 모르는 불순 세력들의 단체가 우리 월남의 죽음과 피와 눈물과 땀의 돈을 빨아먹는 좀비같은 단체를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되어야 한다니!

지금까지 미주월남전참전유공자는 조국이 잘되라고 묵묵히 조국을 위하여 기도만 하며 조국에 바친 수당 일부 외에는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고엽제로 인한 병마와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쓸쓸히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이젠 불순 세력들에게 줄 돈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보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주월남전참전유공자 워싱턴지회 회장 조창석 외 전우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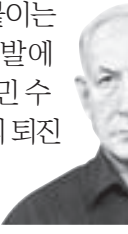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쪽 도시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지역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 이스라엘군은 밤샘작전으로 이곳 검문소를 점령했다. 이날 작전은 이스라엘의 라파 민간인 대피령이 발령된 지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 [AFP=연합뉴스]

네타냐후 “하마스 섬멸” 마이웨이

“네타냐후, 국내 불만 돌리기” 분석 미, 민주당 지지층 민심이반 가속 WSJ “미·이스라엘 정상 간 균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자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말 이른바 ‘무지개 연정’을 토대로 3차 집권에 성공했지만,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사법부 개편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2023년 1월엔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총리 퇴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현재까지 14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에 총리 퇴진 여론이 재점화하자 ‘하마스 섬멸’을 앞세워 내부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도 깊다. 바이든은 개전 초부터 쪽 ‘자위권 옹호’ 등의 논리로 이스라엘에 힘을 보태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시위가 확산하고, 독불장군식 네타냐후의 행보에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 시민을 포함한 한 7명이 탄 국제 구호단체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오폭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용납

할 수 없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적 극 지지해 온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최후통첩성 경계로 해석됐다. 이번 공세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간의 균열을 보여준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를 공습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청년층과 무슬림의 민심이반이 가속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미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위싱턴=김형구 특파원

“트럼프와 성관계” 스톤니 대니얼스 재판서 증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언이자 돈을 받은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가 7일 법정에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과 입막음 돈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는 이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톤니 대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증언하는 스톤니 대니얼스 (일러스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니얼스는 이날 증언에서 2006년 미 서부의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대니얼스가 주장한 성관계 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한 지 약 1년 이 지난 시점이다. 그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유명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것을 제의했고,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말라고 말했다고 대니얼스는 언급했다.

대니얼스는 성관계 사실을 침묵해 달라고 요구한 코언과의 협상이 돈 때문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면서 코언과 트럼프 전 대통령 탓에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가 불과 몇 미터 앞 증언대에서 말하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을 보였으며, 때로는 그의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이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니얼스의 증언 내용이 선전적이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심리 무효(Mistrial) 선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후안 마천 판사는 대니얼스의 말이 명백히 거짓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심리 무효 요청을 반려한 배경을 설명했다.

M4칩 장착 출시 애플, ‘AI·태블릿’ 두마리 토끼잡기

애플이 자사가 개발한 최신 칩 ‘M4’를 내놓으며 지지부진했던 인공지능(AI) 경쟁과 아이패드 판매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나섰다. 애플은 이날 최신 칩인 M4를 공개하고 이 칩이 아이패드 라인업의 최고급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애플의 칩은 개발 단계에 따라 M1~M4로 나뉘는데, M4는 지난해 10월 노트북인 맥북 프로에 탑재한 M3의 후속 모델이다. 애플은 앞서 2022년 10월 아이패드 프로에 M2 칩을 장착했다. 그러나 18개월여만에 내놓는 신제품에서는 M3를 건너뛰고 M4를 곧바로 탑재했다. 맥북 프로보다 더 강력한 칩을 아이패드에 탑재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아이패드 판매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애플은 18개월여간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긴 신제품 공백기를 가졌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기간 아이패드 판매량은 급증했지만, 애플의 지난 두 회계연도에 판매량은 연속으로 감소했



다. 통상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지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25%나 줄었다. 지난 2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도 아이패드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7%나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줬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 나왔다”고 자신하며 반전을 기대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M4’ 칩을 통해 자사의 기기에 강력한 AI 기능이 탑재됐음을 알리며 AI 경쟁 참전을 선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경쟁사가 챗GPT 등장으로 불기 시작한 AI 열풍에 부응해 AI를 접목한 기술과 제품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그러지 못해 AI 기술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들어서는 주가도 하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는 계속돼 왔다.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M4에는 AI 기능을 하는 뉴럴 엔진이 탑재됐다. 이 엔진이 탑재된 것은 2017년 공개한 A11 바이오닉 때부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성능은 강력해졌고 초당 38조회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M4는 A11 바이오닉 대비 속도가 60배 빨라졌고 아이패드에 탑재된 M2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50%,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속도는 4배 빨라졌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 플랫폼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인 팀 밀레는 “뉴럴 엔진은 M4를 AI를 위한 강력한 칩으로 만든다”며 “이는 오늘날 어떤 AIPC의 신경망처리장치(NPU)보다 더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은 이날 M4 칩의 기능에 관해서는 소개할 뿐 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팀 쿡 CEO는 내달에 있을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고만 말했다.

“폭력 시위를 위한 대학 공간은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거들 경계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의회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을 통해 “75년도 아니고 7개월 반이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대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배척당하고 있고, 반유대주의 시위로 공격받고 있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을 무시하고 있으며,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를 낮춰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한 어떤 형태의 증오에도 안식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롭게 시위를 권리를 수호하는 미국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것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대학에도 반유대주의, 혐오 연설, 어떤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리적 공격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며 법을 어기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법을 수호할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고) 숨을 수는 없다”고도 단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미국에서 표현·집회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자전정 반대 텐트 농성이 수주째 이어지고 있다.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SENTERVILLE에서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교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SENTERVILLE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JUNG KWAN JANG

Rev Your Life



만사血통
정관장

혈액 순환이 원활하면 건강 만사가 형통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은 정관장과 함께

가정의달 기획전

행사기간: ~5월 26일 까지

행사1

홍삼정 240g
2개 구매시
홍삼정 30g
3개 증정



\$120 상당

행사2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4개 구매시
1개 증정



행사3

홍삼 달임액
2개 구매시
10% 할인



행사4

천녹톤 2개 구매시
천녹정30g 3개 증정
천녹정 1개 구매시
천녹정30g 2개 증정



\$132 상당

- 행사 5: 기타 금액별 사은품
- 행사 6: 동인비 화장품 up to 30% off!

본 행사는정관장 멤버스 가입자 대상 한정 수량 진행되어 제품 소진시 조기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품 정관장 제품은 애난데일, 센터빌, 엘리콧시티 지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애난데일 지점 703.642.1304 7326 Little River TPKE. #D,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703.815.3434 13822 Braddock Road, #C,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410.480.2304 9380 Baltimore Nat'l Pike, #109, Ellicott City, MD 21042



1년새 IT 55%·금융 40%·보험 18% 고용 감소

화이트칼라 일자리 감소

현재 고용 시장은 뜨겁다. 적어도 지표로 보면 그렇다.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달 신규 일자리는 수십만 개에 이른다. 임금 상승도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3월 신규 일자리만 해도 30만3000개가 늘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20만 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새 일자리가 늘어나면 취업 시장은 좋아야 하지만 현실은 숫자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

3월 일자리 증가를 부문별로 보면 전문직과 사무 서비스는 7000개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증가분도 7만1000개 수준이었다. 이도 지난 1월 사무직 일자리가 갑자기 4만8000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도 전문가들은 이 부문 일자리 급증의 원인을 뚜렷한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를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같은 기간에 생긴 27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일자리 증가가 많았던 부문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보건의료와 여가·접대, 건설, 레저·숙박업이었다. 의료 서비스는 고령화로, 레저·숙박업은 코로나19가 종료되면서, 건설업은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주택 건설 수요가 늘면서 채용이 증가했다.

반면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직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다. 우선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 부문이 위축돼 일자리 증가가 더뎠다. IT 분야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경제가 중요해지면서 고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팬데믹 종식과 함께 대규모 해고가 시작됐다.

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소비자의 구매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바뀌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IT 부문에선 빅테크의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

이번 달 들어서도 구글이 핵심부서의 인력을 200명 이상 해고했고 테슬라도 이달 중순에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밝혀 IT업계의 일자리 감소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 관리자 뱅가드의 최신 고용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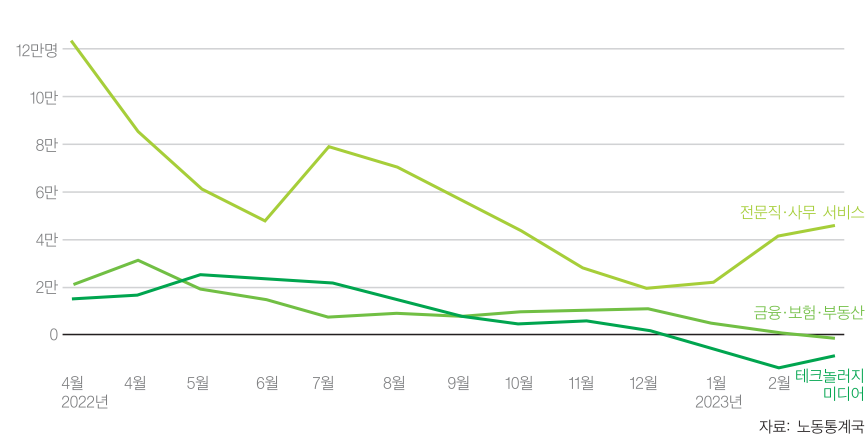
지표로는 고용시장이 뜨겁지만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뱅가드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이 많은 연봉 9만6000달러 이상 일자리는 2014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경제 상황 불확실 전망, 사무직 일자리 늘지 않아 연봉 9만6000달러 이상 상황 2014년 이후 최악 고용 많았던 직종 해고, 대퇴사 빈자리 안 채워”

월별 사무직 고용 변화 추이



직종별 화이트칼라 고용 변화 (3개월 이동 평균)



고서가 집계한 401k 가입률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 5만5000달러 미만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 하지만 사무직이 많은 9만6000달러 이상 일자리는 최고 수준이었던 2022년 중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최악이었다.

화이트칼라 고용이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임시직 과점 고용이 지난 1년 동안 18만1000개 줄었다. 그만큼 사무직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또 전통적으로 기업은 정규직 해고 전에 임시직을 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시직의 감소는 향후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은 징조로 해석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단테 디안토니오 이코노미스트는 임시직 고용 회사의 급여가 2년간 감소하고 있다며 임시직 고용 감소가 더 많은 해고를 예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T업계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감소는 옥상옥에 해당하는 일자리 감축으로 해석된다.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관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불렀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줄이는 경우다. 인디스 조사에 따르면 IT 부문 고용은 1년 사

이 55% 줄었다. 금융은 40% 이상, 보험은 18% 감소했다. 인디스의 닉 벅커 북미연구담당은 “많은 기업들이 중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고용 수준이 기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벅커 담당은 이로 인해 기업들이 특히 마케팅과 관리 부문에서 고용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회계법인 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기업 임원들이 1년 사이 시장의 수요가 훨씬 줄었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향은 금융과 정보 등 전문직과 사무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일자리 감소를 복합적 현상으로 진단한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회사를 그만두던 대퇴사(great resignation)가 잦아 들고 동시에 고용도 줄어드는 현상이 결합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대정체’라고 부른다.

기업들이 퇴사한 이들이 많은 데도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고용 지표가 좋음에도 다시 일자리를 얻으려는 이들에게는 경기 침체가 온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채용이 둔화한 사무직 전문가들은 경제 담론을 이끄는 경우가 많아 구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보이는 효과를 낳는다.

지난 3일 발표된 4월 신규 고용은 17만5000개였다. 전문가 예상치인 24만개보다 현저히 적었다. 그중에서도 의료 부문이 5만600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 지원 3만1000개, 운송·창고 2만2000개, 소매 2만개였다. 최근 몇 달간 탄탄했던 정부 부문은 지난 12개월 평균 5만5000개보다 훨씬 적은 8000개에 그쳤다. 화이트칼라를 더 줄어든 것이다.

노동시장 조사기관인 버닝글래스 인스티튜트의 가이 버거 경제연구 책임자는 조만간 전면적인 불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학력 실업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도입이 본격화하고 전문직 영역 잠식이 시작되면 고임금 직종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 버거 책임자는 “해고가 급증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이 3~4년 더 지속한다면 기업 내 불만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안윤희 에디터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총선 낙선 이원모 재발탁... 윤 대통령 최측근 다시 용산으로

민정수석, 폐지 2년만에 부활

이, 검사 출신으로 용인갑 출마경력 야당 “총선 민의 거스르는 것” 반발 대통령 “민정수석, 국민 위해 설치” 예고 없이 브리핑룸서 5분간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인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와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했다. 브리핑룸에 머무른 시간은 5분 남짓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선 직후 폐지를 선언했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 기초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뜻의 민정(民情) 업무를 담당하던 수석실 폐지 후 낯설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14일 인수위 사무실 첫 출근 일성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유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탈취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DJ)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부 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도 덧붙였다.

과거 DJ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사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司正) 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취임 1년 4개월 만인 1999년 6월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했다. 같은해 5월 터진 ‘웃로비’ 사건이 계기였다. DJ의 초대 민정수석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성재(당시 한신대 교수)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다. 6개월 후엔 검찰 출신인 신광옥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선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뛰어난 인사말을 통해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깝고

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정보의 수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심 제대로 읽으려는 것”

서울 출신인 김 수석은 1989년 서울 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김 수석(사법연수원 18기)은 사법시험 기수로는 윤 대통령보다 다섯 기수 선배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에서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로 오래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라고 전했다.

여소야대 구도 속 야권이 각종 특검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김 수석에게 과제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용산과 검찰 조직 간 불화설을 제거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크게 갈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가깝고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야당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 통제와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 강화에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번에 신설된 민정수석은 ‘공여지책 방탄수석’이라고 했고,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출범 당시 2실장·5수석 체제로 시작했던 대통령실도 3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된다. 다만 이날 발표한 대통령실 조직개편에선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어느 수준에서 할지, 인사 검증 기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 야당 비판엔 주먹까지 쥐며 반박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

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내정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 갑에 출마했던 이원모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에서 패배한 검사 출신 복심을 한 달 만에 재발탁하는 건 결국 검찰 장악력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옥죄려는 의도이자,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은 예고에 없던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얹혀 사정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설명 중간마다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며 설명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한 건 지난달 22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 이후 15일 만이다. 통상 신임 수석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장이 소개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에 왜 공약을 반복했는지, 그만큼 민정수석이 필요했던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소통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과 돌과구가 보이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제2부속실 설치 등 까다로운 이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할 점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자”는 당부를 전하며 관련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 중이라고 한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정치적 현안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기자들과 진지하게 논쟁해 보고 싶다”는 의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 전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브리핑룸에 내려와 질의응답을 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발언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성과보다는 남은 3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심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박태인·정용환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야당은 특하면, 여당은 덩달아... 특검, 정쟁 무기로 전략

민형배 “이화영 회유 의혹, 특검을”
김민전 “김혜경·김정숙 특검해야”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과 당선인이 모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당선인 민형배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 행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의혹 등 ‘3김(金) 여사’ 특검을 하자”고 썼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당에서 또 다른 특검을 들고나오는 게 지금 여당의 현주소다. ‘특검 정치’란 말이 과언이 아니다. 4·10 총선 때도 특검은 여야 공방의 핵심 이슈였다. 민주당은 유세 현장마다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외쳤다. 이에 질세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총선 직후에도 “특검 추진이 곧 민심”이라는 야권과 이에 반발하는 여권의 충돌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버리고 있다.

특검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했지만, 여야가 서로를 겨누는 정치적 성격의 특검은 2018년 6월 출범한 ‘드루킹 특검’을 제외하곤 헛돌기만 했다. “특검이 실제적 진실이나 진상 규명

보다는 정치 집단의 소모적 정쟁 도구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발의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진상 규명 특검법(2019년 1월)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의혹 특검법(2020년 10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2021년 9월)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의 본부장(본인·부모·장모) 의혹 특검법(2022년 3월) 등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를 특검이 파고드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통화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쟁성 특검 카드부터 챙긴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전고를 울리듯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의회 권력의 독주”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비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넘어간 ‘특검 후보 추천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2년 2월 디도스 사건 특검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장 혹은 대법원장 등 중립지대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12년 9월 내국동 사저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부터 사실상 추천권이 야당 교섭단체에 넘어갔다. 손국희·성지원·김정재 기자

6년째 공전 중인 특검법 정치 ※2018년 5월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발의된 주요 특검법

김학의 뇌물 수수, 성접대 의혹 특검법 2019년 4월 당론 발의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의혹 특검법 2020년 10월 당론 발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 2021년 9월 당론 발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2023년 3월 당론 발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2023년 3월 당론 발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2023년 9월 당론 발의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기획통’ 민정수석 발탁... 법조계 “검찰 인사 고려한 듯”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수석은 법무부 검찰과 검사·검찰과정·검찰국장·차관 등을 지냈다. 주로 대국회 업무, 인사·예산·정책 등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검사를 말하는 소위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역대 검찰 출신 민정수석 대부분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이었던 점과 대비된다.

법조계에선 민정수석에 기획통을 발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총선 참패로 검

찰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인사권으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도 용산과 소원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실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은 양날의 칼이었다. ‘민심 청취’가 때로 ‘정적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사정기관 ‘관리’ 기능은 ‘장악’과 동의어였다. 민정수석이 친정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일도 많았다. 김대중 정부 신광옥 전 수석은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 박정구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향후 수석실 진용을 짤 때,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한 사람을 발탁해야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득이 더 크다”며 “권력 장악의 칼로 쓰려는 순간, 앞선 사례처럼 언젠간 대통령을 향한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함성득·임혁백 ‘영수회담 비선 역할’ 주장 파문

여당 계사관 “대통령 탈당” 주장도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맡아 물밑 조율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하면서 벌어졌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 임 교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친형 인사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서로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뷰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

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직후 “(총리) 인사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브리핑을 했다. 사전 협상 때도 “총리 인선은 논의된 적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인터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보도됐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이 대표가 “양평교

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 여당과 야당을 통해 받아왔다”며 “대통령이 결정해서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라인을 거쳤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두 교수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취지만 정치권의 의구심은 계속됐다.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대통령실이 두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분은,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신평번호사가 지난달 한 언론에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전한 내용과 유사하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당원 계사관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충격이다. (윤 대통령은) 진짜 보수 궤멸자다. 지금 탈당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태인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퇴임 낙달 앞둔 이원석의 원칙주의 ... 약속 대련? 반기?

이 "법리따라 엄정 수사" 재차 강조
김건희 수사 압박하던 야권도 당혹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앞으로 여러분이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며 한 말이다.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게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뒤 재차 '엄정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검찰 수장이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거듭 강조하자 해석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여러 갈래로 뻗었다. 틈만 나면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압박하던 야권도 갈광질판이다. 7일만 해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사 쇼"(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라는 '약속 대련 살'과

"검찰도 종을 치기 시작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는 '검찰 반기설'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그러나 "원칙주의자" 총장이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발언은 다른 의도가 없다"며 "사건 접수 후엔 총선 기간이어서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을 아낀 것일 뿐, 사건을 접었던 게 아니라 조용히 서류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이 원칙주의자라는 건 검찰 내에서 유명하다. 지난달 야권의 '술판 회유 의혹' 당시 "공당이 이화영 진술만 믿고 끌려다니지 마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탄 모습이 대표적이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돼 "재임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이 총장의 원칙주의자적인 면모를 더 끌어올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장으로선 '총장 임기 동안 권력형 수사는 하나도 못 건드렸다'는 꼬리표를 달고 떠

나는 건 대단한 치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 총장도 최근 주변부에 "임기 중 벌어진 일은 마무리 짓고 가겠다"며 총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이 총장의 진정성은 향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엄중한 처분'이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 총장 임기 중 시작된 사건은 아니더라도 임기 중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은 맞다"며 "이 총장의 원칙이 보편타당한 원칙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연금 소득대체율 여당 43%, 야당 45% ... 2%p 놓고 결렬

보험료 9~13% 인상엔 의견 일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일치해 보험료 4%p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특위는 합의안을 만든 후 8일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출장을 취소했다.

이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 13%-대체율 45%'를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며 매년 0.5%p 줄어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양당 간사는 상대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42%에서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걸 중단하고 올리려면 최소한 보험료를 인상이 대체율 인상과 비슷하거나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치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기금소진을 9년 늦추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 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로, 우리보다 2배를 더 내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15%-대체율 50%'를 1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어렵다고 해서 '보험료 13%-대체율 45%'의 차선택을 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 여당이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가운데)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7일 연금개혁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넘기자고 말한 게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이 결렬됐지만 합의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김성주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오늘 수치를 공개

한 것은 국민이 판단해 달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소득대체율에서 2%p 차가

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22일 내에 차이를 좁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머리를 맞대 합의안이 만들어지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 선에서 합의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보험료 13%-대체율 43%'가 시행되면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고, 고갈 후 최고보험료율이 37.5%가 필요하다. 2093년 4318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안(13%-45%)으로 하면 고갈 시기는 2063년, 최고보험료는 39.1%, 적자감소액은 2766조원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두 개 안보다 고갈 시기가 2~3년 늦춰지고, 누적적자도 적지 않게 줄어들게 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할 경우 기금 고갈은 2064년, 최고보험료는 38.8%, 누적적자 감소액은 3738조원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분 2%p를 상쇄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안정에는 보험료율 인상분의 절반(2%p)만 기여하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남수현 기자

철도지하화 속도낸다, 올해말 1차 선도사업 지역 선정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8일 오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출범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분과위원들과 국가철도공단·코레일·LH 등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 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

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 6가지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는 우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과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간별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올해 말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제안을 받은 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교통 관련 민생토론회에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속도·주거환경·공간혁신)' 중 공간혁신의 대표 사업으로 철도지하화가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일명 철도 지하화법)'도 1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규모 철도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김강섭 교통전문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p>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p>	 <p>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p>	 <p>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p>	 <p>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p>
--	---	---	---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우리말 바꾸기

‘~로써’ ‘~로서’ 구분

자주 쓰면서도 헷갈리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로써’ ‘~로서’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다.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었다” 등과 같이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인다.

(에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가 이런 예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등과 같이 수단이나 도구, “콩으로써 매주를 쓴다” 등처럼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는 ‘~로써’가 사용된다.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보’보다 뜻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일곱 번째가 됩니다” 등이 이렇게 사용된 예다. ‘~로서’는 인격체에, ‘~로써’는 사물이나 도구에 붙는 말이 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재정칼럼

목전에 다가온 은퇴 준비



이명덕 재정학 박사

누구나 안락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희망한다. 그러나 은퇴 계획은 시장의 변동성, 의료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항상 난관에 부딪힌다. 은퇴자는 고정 수입으로 장기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은퇴 준비도 예상치 못한 일까지 고려해야 한다.

▶은퇴 재정 계획 검토

은퇴하기 전에 생활비, 의료비, 여행경비 등을 고려한 후 은퇴를 준비한다. 재정적인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은퇴 전에 남아있는 빚은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이후 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해 봐야 은퇴 시점을 미리 조절할 수 있다. 은퇴 후 생존 기간에 은퇴자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 위험은 미리 방지해야 한다.

▶은퇴 자금 최대 투자

은퇴 전 몇 년은 대부분 수입이 가장 많을 때이다. 정부가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직장인은 연간 3만500달러까지 은퇴 플랜에 투자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부부가 각자 8000달러씩 투자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영향 대비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처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어뉴이티 투자 등으로 받는 연금은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액수다. 은퇴자금의 꾸준한

재투자로 최소 물가 상승률 만큼은 불어나야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 결정

사회보장 연금을 62세부터 받으면 정상 은퇴 나이(Full Retirement Age)가 되어 받는 액수보다 약 30% 정도 감소한다. “일찍 죽을 수 있다” “연금에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찍 수령하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액수를 20~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받아야만 한다. 요즘 의료 발전 등으로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훨씬 길다.

▶의료 계획은 신중하게 수립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부부는 은퇴 후 건강 관리 비용으로 평균 31만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용은 건강 상태나 건강보험 보장 범위 선택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별도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메

디케어를 받는 나이에 은퇴하면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 재정 도움

자녀의 주택 구매 다운 페이먼트나 생활비 보조, 혹은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해 소중한 은퇴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자금이 많은 적든 목돈이 빠져나가면 일을 다시 하기 전까지는 보충할 수 없다. 은퇴한 부모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축에서 지출로 관점 전환

평생 일 하며 저축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 검소하게 생활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감정 변화이다. 평생을 저축한 은퇴자금에서 수입은 없고 곳감 빼 먹듯이 소비하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도 재정 유지 계획 필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어서 새로 더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해도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대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은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아침에

추억의 ‘99센트 온리 스토어’



이리나 수필가

‘99센트 온리 스토어(99 Cent Only Store)’는 좋아하는 가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가게 단골손님이었다.

하루는 작은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일이 있었다. 비누로 깨끗이 씻기고 연고도 바르고 마지막엔 그 당시 한창 인기 있었던 TV 아동용 애니메이션 여자 주인공 도라 디 익스플로러가 선명하게 프린트된 반창고를 붙여줬다. 조금 깊은 상처여서 쓰라리고 아팠을 텐데 도라를 좋아해서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딸은 도라가 새겨진 반창고를 모든 인형의 팔과 다리, 얼굴에 붙여주었다. 인형이 아파서 붙여줬다며 안스럽다는 표정까지 지었다. 그리 비싼 반창고도 아니고 딸이 좋아해서 아가자 기한 동물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를 몇 개 더 샀다. 딸은 한동안 그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99센트 온리 스토어’에서 파는 많은 품목 중 딸은 스티커를 제일 좋아했다. 꽃 그림, 동물 그림, 위니 더 푸 캐릭터, 헬로키티 등 크고 작은 스

티커는 항상 사는 물건이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들은 으레 내 핸드백에 먼저 눈길을 줬다. 스티커를 핸드백에서 꺼냈을 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환한 미소, 웃음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싫증 낼 때까지 샀다. 벽과 유리창, 의자 다리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한동안 우리 집은 인형의 집처럼 스티커로 치장됐다.

주로 생필품을 파는 곳이지만 의외로 선물용품, 공구류, 애완동물 용품, 미용 보조식품 등과 무슨 용도로 쓰는 제품인지 모르는 물건도 의외로 많다. 아이들 학교에서 내주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99센트 온리 스토어’를 찾곤 했다.

어떤 선생님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프로젝트

를 요구해서 어느 가게에서는 팔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했다. 여기에 먼저 들러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에 걸맞은 물건을 사고 크래프트 가게인 마이클스에서 나머지 필요한 재료를 사서 프로젝트를 끝내곤 했다.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동심을 부풀리는 가게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99센트 스토어’가 사업 부진으로 모든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급리와 물가도 올랐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못내 서운해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가게 안에 있는 텅 빈 선반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뻘뻘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던 때가 생각난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손에 꼭 쥐고 사달라며 나를 보고 씩 웃던 모습이 그림다. 이제 가게는 없어졌지만,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은 내 마음에 여전히 고이 담겨있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공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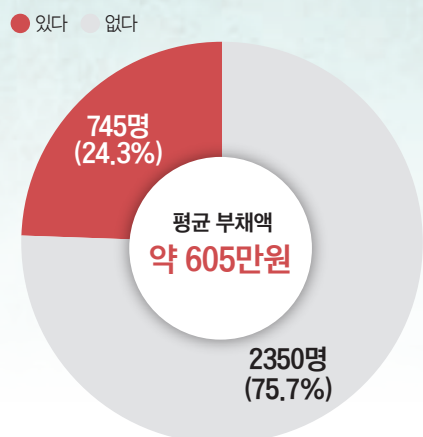
“아무도 돈 관리법 안 알려줘... 자립청년은 몸만 큰 어른”

- 글 쓰는 순서
- 상 통계서도 의면받은 죽음
 - 중 자립 등쳐먹는 하이에나들
 - 하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유희·게임 등에 지원금 탕진 허다 명품 사고 성형하다 돈 다 쓰기도

“정부 자립교육은 시간만 때우다 끝 물고기잡는 법 알려주는 교육 절실”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 부채 있다



부채 발생이유는

단위: %, 중복응답 ※자립준비청년 1~5년 차 3104명 대상 조사

생활비	66.2
학자금	29.6
주거비	23.7
의료비	5.9
가족부채 또는 사기	5.6
차량 구입	2.3
휴대폰 할부 및 미납	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년)



“돈 불러줄게”... 자립할 돈마저 뜯어갔다

자립준비청년 20명이 말하는 “정말 필요한 제도” 단위: 명

경제 교육 및 취업 지도	7
복지·교육 제도 등 홍보	3
사회적 편견 줄이기	4
정서·심리치유 및 멘토링	4
기존 지원책 질 제고	2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 이혼으로 서울 용산구의 한 보육원에 맡겨진 강현중(26·가명)씨는 8년 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호 종료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었다. 아버지는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돈을 주면 크게 불러주겠다. 넌 경제관념이 없으니 내게 맡기라”고 했다. 강씨는 자립정착금과 후원금을 합쳐 약 800만원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강씨는 “아버지가 생활비와 대출금 갚는 데 돈을 다 쓴 것 같다. 목돈을 노리고 일부러 자식을 보육원에 맡기는 부모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에 독립하면서 지자체로부터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2019년부터 매달 30만원(현재 50만원)의 자립수당도 보호 종료 뒤 5년간 받는다. 또 2007년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디딤씨앗통장)에 민간 기부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모았다 퇴소할 때 한꺼번에 주기도 한다. 학자금이나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생활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이런 목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까운 지인에게 뺏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지연(24·가명)씨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뜯겼다. 박씨는 중학교 3학년 때 교제한 A씨로부터 “같이 살려면 원통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모아둔 후원금 800만원을 건넸다. 한 달 뒤 A씨는 다른 여성과 잠적했다. 박씨는 “주변에서 아무도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몸만 큰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분양사기·중고거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2019년 보육원에서 나온 이모(26)씨는 2021년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7억1500만원짜리 오피스텔 분양사기를 당했다. 부동산 지식이 전무했던 이씨는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금은 대출 80%에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면 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고 정착금과 후원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대출 3000만원 등을 합해 계약금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영종도 신도시의 해당 오피스텔은 잔금 대출이 최대 40%밖에 안 된다 임대수요도 없어 계획했던 대로 소유권을 갖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 소송을 힘겹게 진행 중이다. 이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과 현실은 달랐다”고 토로했다.

중고차 사기를 당하거나 유희·게임 등에 목돈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다. 굿네이버스 경남 자립준비청년지원관 황민주 과정은 “보험료나 수리비 등 관리 비용에 대한 개념 없이 중고차를 사다 보니 사후관리가 어려워져 카투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명품을 사거나 성형수술 등으로 수백만원을 한번에 다 썼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을 등치는 하이에나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자립준비청년 20명 중 7명도 ‘자립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취업 관련 교육을 꼽았다. 보육원 출신 윤모(28)씨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보호 종료 전에 일상생활, 자기 보호법, 돈 관리, 진로 탐색, 직장생활 기술 등 자립준비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한데 모아 같은 수업을 듣게 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자립준비청년들은 입을 모았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년 차 자립준비청년 3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자기 보호, 돈 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회적 기술 등 기초자립 교육 5과목 가운데 참여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평균 1.75개에 그쳤다.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직장생활 기술 등 진학 교육 2과목 중에선 평균 0.53개에 불과했다. 보육원 출신 B씨는 “시간을 때우다 사진 촬영만 하고 끝내는 교육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변근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은 훗날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어 “보육원 선후배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보니 옹고그름에 대한 판단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정세희·김서원·박종서 기자

15세 때 성추행 당해 보육원 퇴소 지원도 종료... “어떻게 살지 막막했다”

18세 이전 중도퇴소 댄 관리 사각

울산에 사는 자립준비청년 A씨(24)는 15살 때인 2015년 보육원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보육원을 퇴

소할 때 받은 800만원으로 고시원을 전전했다. 당시엔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자’에 한해 정착금·수당 등이 지원됐기 때문에 A씨는 해당이 안 됐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다”고 말했다. 만 18세 이전 보육

원 퇴소자 등 적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만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지원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중도 퇴소자 등을 발굴할 방법은 미비한 상태다. 중도 퇴소자 등을 찾아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선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데다 당사자들도 보육원그룹홈 출신임을 드러내기 꺼려 한다. 이상정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약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도 정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경계성 지능 장애인 지능지수(IQ)가 지적 장애인보다는 높지만 71~84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굿네이버스 경남 자립준비청년지원관 황민주 과정은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 정

도가 경계성 지능 장애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장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데다 이들을 지원할 정부 매뉴얼도 미흡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선임연구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활동을 늘리고 경계성 지능 청년 등을 위해서는 쉬운 말 안내 등 눈높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챌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시 설

대통령 회견의 성과, 공감 능력과 진솔함에 달렸다

내일 오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적잖다. 실제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이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위주로 준비하자’고 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다. 많이 늦었지만, 매우 다정스러운 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자칫 장황한 일방적 주장으로 흘러선 곤란하다. 지난달 1일 의료 파행 관련 담화 때가 그랬다.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이번 회견 역시 실패다.

이번 회견의 성과는 결국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진솔함에 달렸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수사 중이라 말하기 힘들다”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란 논리만 앞세우기보다는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불공정과 분노의 마음을 잘 알아져 공감 가는 답변을 내놓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KBS와의 특별대담에서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는 식의 표현으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범용한 민심을 피부로 접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민심을 생생히 전달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리·논리 앞세우기보단 공감의 자세 우선돼야
진정성 담긴 답변에 사과할 건 사과 주저 말기를

고 채수근 상병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보다는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귀한 외아들 해병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채 상병 부모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공감의 언어가 우선돼야 한다. 대한민국 장병은 우리 모두의 아들 아닌가. 나아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위야 어쨌든 집단항명수괴죄란 어마무시한 죄목을 적용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밝혔으면 한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데서 출발한다. 자기편, 자기 진영, 자기 가족의 목소리만을 앞세우면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는 없다. 자신의 공감 능력을 국민에게 내보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회견에 나서기 바란다. 남은 임기 3년은 9일의 회견에 달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했으면 한다.

대통령의 태도도 변수가 될 터다. 생방송으로 중계될 회견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표정, 말투, 제스처 하나 하나에 촉각을 기울이게 된다. 흑사라도 기어나 국민을 바로잡겠다며 가르치려 드는 인상을 준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게 된다. 잘 듣고, 겸손히, 정성껏 답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참뜻과 진정성을 다시 이해해 줄 것이다. 또 용기 있게 사과할 건 사과하면 향후 정국 운영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대상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용사면 등을 거론하며 ‘처분적 법령’을 많이 활용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문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적극 부응하고 나선 결과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려면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추경에 반대하는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 조항을 비롯해 입법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특정인이나 특정 대상만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입법권이 남용되고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클 경우에만 처분적 법률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BBK 특검법’ 위헌 소송에서 “처분적 법률에 따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정도가 지나치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됐듯이 정부의 재정 역력이 없고 물가만 불안하게 하며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기는 힘들다. 민주당의 25만원 입법은 오히려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예산 세부 단위) 설치를 금지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도 걱정스럽다. 양곡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보관하는 데만 연간 33조원 이상 들어간다. 특정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은 적용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만 키울 우려가 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경제 입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이다. 거대 야당이라고 입법 폭주에 나선 민주당이 지금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문재인 그리고 김영한, 조대환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다들 알다시피 앞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16개월 만에 되살린 건 DJ(김대중)였다. 당시엔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12년 후 발간한 자서전에 생각을 담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여론 수렴을 강화하란 재야 및 시민 단체의 건의를 수용했다. 민정수석에 김성재 한신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수석에게 당부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상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딱 다섯 문장이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짧은 설명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막강한 민정수석이란 자리와 대비된다. DJ는 부인이 거명된 옷 로비의 의혹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다잡고 싶어 했다. 처음엔 학자를 기용했지만 이내 검찰 출신으로 바꾸었다. 업무 범위도 민정(民情·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다 사정(司正)을 더했다.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어떤 자리이기에 싶을 것이다.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모든 권력기관 위에 있다.” 한 민정수석 출신의 말이다. 그래서인지 MB(이명박) 정부 시절 여권 중진은 신임 민정수석(권재진)에게 이런 조언까지 했다. “대통령이 떨어놓았다. ‘대통령 말만 들어선 안 된다. 문재인이 사람 좋다. 어렵다 하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김성재 이래 7일 임명된 김주현까지 민정수석은 26명에 불과하다. 배타적 체계다. 이들 중 3명 정도만 직·간접적으로 기록을 남겼을 정도로 가려져 있기도 하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자서전(『운명』)에서 대북송금 특검 수용이나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개혁은 물론이고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폐장 건설, 노동문제까지도 주도했다고 썼다. 대선자금 수사나 측근 비리(나라종금) 사건을 관리했고, 한·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도 중재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을 언급할 때도 ‘우리’라고 했다. “우리는 첫 국방장관으로 준비된 카드가 없었다”고 말이다. 실로 ‘왕

수석’이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두 수석의 기록은 처연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김영한의 업무일지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20쪽 분량인데, ‘영(領, 박 전 대통령)’과 ‘장(長,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어떻게 짓눌렸는지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엔 가 이렇게 적혀 있다. ‘領·죽음에 대하여 관대한 전통. 동정론/ 음모론. 사기·조작론/ 지연책임론/ 오로지 fact, 신뢰성을 얻는 것이 중요/ 수사 方向(방향) comment (검찰) - 후속 조치/ (중략)/ 성범죄자 身上情報(신상정보) 확인 - 잘한 일. 弘報(홍보)되도록/ × 휴가철 犯罪(범죄) 유관부처 협조 - 대처.’

마지막 수석인 조대환은 “(출근) 1주일 만에 혈압약을 다시 복용했다”고 할 만큼 격무였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구

민정수석의 공간, 이전보다 줄어
쓴소리해도 신뢰 거두지 말아야
대통령 의지 관철 통로로는 한계

속영양 청구 건에 대해선 사전협의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남들길』). 스스로 ‘얕은뱅이 용틀임’이라고 했다.

셋을 가른 건,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였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였다. 대통령이 신임을 거두면 아무리 내로라하던 인사(최재경·신현수)도 몇 달 못 가곤 했다. 분명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아야 하지만 민정수석에 앉았다면 어떻게든 계속 신뢰해야 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그게 직(職)의 본질이어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관점에서 보면 썩 좋은 보스는 아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민정수석의 공간을 확 줄이는 바람에 훨씬 고난도가 됐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 됐다. 윤 대통령은 게다가 불편한 소리를 하면 “내 편 안 든다”고 서운해 한다고 소문나 있다. 과거와 같이 ‘활약’을 하기에 가혹한 조건이다. 그나마 민심의 통로로는 쓸 만할 테지만, 대통령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턱없이 미흡할 것이다. 그런데도 기대한다? 함포에 들어선 윤 대통령에겐 사치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속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 제재시 마약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구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 뉴스, 日本經濟新聞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May 8,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비염·허리디스크 한약도 건보...환자 부담 확 줄어든다

비염,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4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 한약(첩약) 건강보험 2단계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염 환자는 약 611만여명, 허리디스크 환자는 210만여명, 소화불량 환자는 143만여명에 이른다. 도합 1000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한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및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에 있다. 그동안 환자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오롯이 환자에게 주어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개선사항으로 '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먼저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첩약과 한약제제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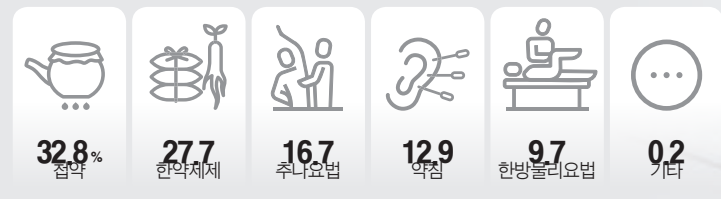
1단계 시범사업, 환자 96%가 "만족한다"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매우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왔다. 1984년 충북, 청주 등에서 첩약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2020년 11월에는 9024개 한의원 참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당시 적용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사업 결과 약 96%의 환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환자에게 계속 시범사업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94%나 됐다.

진료 중 만성적으로 질환에 시달려 왔던 환자들이 만나보면 단기간에 증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020년 11월 20일~2024년 4월 28일	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31일
대상 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1단계+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뇌혈관질환 후유증(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50%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치료법 자료: 한의약진흥원



한약 건보 2단계 시범사업 시작
1단계 3개 이어 적용 질환 3개 추가
본인 부담률 최대 30%까지 줄어
한약·침·추나요법 등 한의통합치료
부작용 적으며 치료 예후도 좋아

상 정도를 낮추는 것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한 연구에서도 환자들은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 완화보다 '기능 개선'(55.8%)을 더욱 원했고, 빠른 치료보다 '재발 없는 안정적인 치료'(78.2%)를 선택했다. 치료 효과 측면에서도 효과 높은 치료보다 '부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56.4%)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래 증상을 겪어온 환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환자들 자신도 본질적인 질환의 원인을 해결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체감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척추 사이 디스크(추간판)가 제자리를 벗어나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나이가 들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아

져 단계적 통증 완화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주요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1년간 이뤄진 일반 척추수술 건수는 약 20만4000건으로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술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마취와 함께 신체 일부 절개하는 등 몸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오롯이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수술 후에도 통증에 고통받는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안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도 필수다. 방치할 경우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수술 조직들이 유착돼 굳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하인혁 부천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한약'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약 챙겨드리기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말동무 해드리기
♥ 식사 도와드리기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원 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임신 중 고혈압·단백뇨, 산모·태아에 치명적... 두통·시야 흐려지면 위험

임신중독증 톨아보기 임신한 시기에 발병하는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성 질환이다. 임신 20주 이후 산모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김민형 과장은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성은 나이에 따른 임신 중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임신중독증에 대해 살펴봤다.

권선미 기자



임신중독증은 임신으로 새롭게 발생한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이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김의혁(고위험산모치료센터장) 교수는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을 동반한 단백뇨가 관찰되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한다”고 말했다.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게 얼마나 위험하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임신부 사망 원인의 1위일 정도로 산모·태아에게 치명적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초기 태반의 형성 장애로 인해 임신 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혈액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남지나 교수는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증이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중증 임신중독증인 전자간증으로 진행하면 자궁 내 태아 성장이 더디고 태반이 조기 박리되는 등 위중도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산모도 경련을 일으키고 간 파열, 뇌출혈, 폐부종,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로 증가했다. 매년 출생아 수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임신에서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1.9%에서 2018년 31.8%로 오히려 2.6배가량 증가했다. 고령 산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위험이 높은 데다 임신할 당시 기저 질환을 동반한 상태에서 임신할 수도 있다. 고령 임신은 젊은 임신부와 달리 불량한 임신 결과의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는 관찰 연구도 있다.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하는 임신중독증을 의심하는 증상은 다양하다. ▶심한 두통이 지속하거나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눈앞이 번쩍하는 시각 장애가 생기거나 ▶다리가 통통 붓는 부종이 생기거나 ▶오른쪽 윗배가 꼬집듯이 아프거나 ▶체중이 일주일당 2~3kg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김의혁 교수는 “임신중독증 의심 징후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신중독증은 질병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작 며칠 새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임신중독증 고위험군은 ▶초산(첫 임신)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 ▶다태(쌍둥이) 임신 ▶이전 임신에서 임신중독증 과거력 등이 있을 때다. 삼성서울

병원 산부인과 성지나 교수는 “임신중독증 가족력이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모의 엄마·이모·자매 등 모계를 중심으로 임신중독증 가족력이 있다면 임신중독증 발병 위험이 3배가량 높다는 분석도 있다. 남지나 교수는 “비만, 만성 고혈압, 당뇨병, 루푸스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임신부도 임신중독증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약물치료 등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임신중독증의 최종적 치료법은 임신을 종결하는 분만이다. 문제는 산모가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위험한

상황이 언제 발생하느냐다. 임신 주수는 태아의 생존율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김민형 과장은 “임신 34주 이후에 발견된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행하면 바로 분만한다”고 말했다. 임신 34주 이전이라면 태아의 폐 기능 발달 정도 등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분만 시점을 결정한다.

전자간증 등 중증 임신중독증 고위험군이라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예방적 치료도 고려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임신중독증 고위험 위험 인자를 2개 이상 가진 산모에게 임신 12~28주부터 출산 때까지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한다. 성지나 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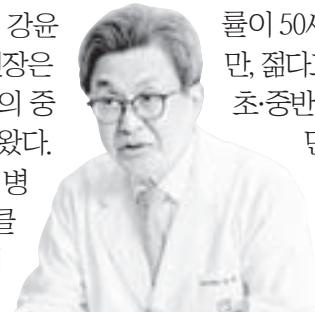
“임신 제1 삼분기 후반부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한 경우 임신중독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적 산전 진찰도 중요하다. 고령 임신이라면 임신 20주 차가 됐을 때 임신중독증을 예측하는 혈액검사(sFlt-1/PlGF 검사)를 고려한다. 현재 임신중독증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물론 4주 안에 임신중독증이 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 임신중독증 위험도가 클수록 관련 수치가 높아진다.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검사하면 경과 변화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유용하다.

인터뷰 강윤식 기쁨병원 병원장

“50세 이전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 중요...장 비우는 약 개선해 거부감 줄여”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다.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생존율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다.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을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다. 강윤식(사진) 기쁨병원 병원장은 그간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1991년에는 국내 민간 병원 최초로 대장내시경클리닉을 개설하는 등 대장 내시경 검사의 활성



화에도 기여했다. 강 병원장에게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둘 내용을 들어봤다.

—이른 나이부터 대장 검진을 하는 게 좋을까.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부터 받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대장암 발병률이 50세 이후로 증가하는 건 맞지만, 젊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30대 초·중반에 검사를 하고 용종이 있다면 이를 제거한 다음 2년 뒤 한 번 더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다. 용종이 없을 경우에는 4년 주기로 검사받길 권한다. 가족력이 있거

나 대장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도 검사는 필요하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뭔가.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 다만 갑자기 변을 보는 횟수가 달라지는 등 배변 습관에 변화가 나타나면 암 발병을 의심할 만하다.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복통을 겪고 식욕이나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장 정결제 탓에 검사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
“대장 내시경 전에는 장 청소를 위해 장 정결제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 정결제는 복용량이 2~4L로 많

고 비릿한 맛이 난다. 검사 전날 장 정결제를 먹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장 정결제의 맛, 용량 등을 개선한 원프렘을 개발했다. 원프렘은 함께 마시는 물을 함해도 복용량이 1.38L에 불과하다. 레몬 맛에 검사 당일 한 번(검사 4~5시간 전)만 약을 먹으면 돼 수검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하면 즉시 없애야 하나.
“대장 용종은 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눈으로는 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발견 즉시 제거

하는 게 좋다. 기쁨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2cm 미만 용종의 경우 발견 즉시 절제할 수 있다. 2cm 이상의 거대 용종은 검사 후 준비 과정을 거치나 이 역시 당일 제거할 수 있다. 숙련된 의료진과 용종 절제를 위한 장비들이 모두 마련돼 가능한 일이다.”

—검사 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돼지고기·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나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 발효식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또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수 기자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천 년 역사 가진 고급 약재... 간 기능 개선하고 면역 활성화, 항당뇨 효과까지

황칠의 건강 효과 과거에는 활용 가치가 높았지만 지금은 다소 낯설어진 전통 약재들이 있다. 너무 귀해 처방 및 약재 활용 사례가 줄었거나 현대에 오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이 대부분이다. 황칠(黃漆·Dendropanax trifidus)의 경우는 전자에 속한다. 다른 약재에 비해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황칠의 다양한 효능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최고급 약재로 여겨져 온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약재다.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자 조공품의 핵심이었다. 류장훈 기자



황칠의 학명은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만큼 약재로서 가치가 높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사포닌 함량이 높아 '나무 인삼'으로도 불렸다. 실제로 황칠나무 뿌리에서 인삼 냄새가 난다고 한다. 황칠의 다양한 쓰임새는 고서(古書)에 잘 나와 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 황칠에 대해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신기통, 구토, 설사를 하는 광란 치료에 도움된다'고 적었다. 중국 명나라의 본초학 연구서인 『본초강목』에는 급성 심통과 복통, 관절통에 대한 효과가 기록돼 있다. 또 모든 약재의 효능을 집대성한 『중약대사전』에는 '풍기와 습을 제거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통증을 멈추게 하며 풍습비통과 두통, 생리불순, 넘어져 다치거나 종창 등을 치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풍습비통과 허리 통증, 소아마비 후유증, 반신불수, 타박상, 생리불순 등을 치료한다'([광서본초사전]), '편두통과 어깨 신경통을 치료한다'([전국중약총집]) 등 다양한 기록이 있다.

간세포 생존율 높이고 면역 세포 늘려 황칠의 효능 중에서도 핵심은 간 기능 개선(피로 해소)과 면역 활성화 증진이다. 생명과학회지(2020)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사염화탄소로 산화적 손상을 입은 간세포를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로 처리하고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간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근 만성 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천연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간세포 내 지질 축적 억제 효능을 가지면서 안전성이 규명된 천연물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은 간세포에 대한 보호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면역과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다. 실험용 쥐에서 발효 황칠 추출물의 면역 조절 활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표준실험실 조건에서 황칠 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경우 T림프구, B림프구, 비장 세포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면역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고, 비장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에 있는 세균·항원 등을 걸러내며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기관이다. 연구진은 "황칠이 림프구 수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한 것으로 관찰됐고, T세포 증식능은 증가, B세포 증식능은 감소했으며 경표피 수분량은 증가했다. 연구진은 "추출물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 유발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정상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또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인 피부 건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혈당 수치 낮추는 클로로겐산 등 풍부 황칠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산화·항염·항당뇨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로로겐산, 페룰산, 퀘르세틴, 루틴 등 황칠에 함유된 주요 성분 때문이다.

천연 화합물인 클로로겐산은 몸 안에서 과산화지질의 생성 억제,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식사 후 혈액으로 글루코스(당당류) 방출을 느리게 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페룰산 역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당 강하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게다가 멜라닌 색소 제거와 기미·주근깨 생성 억제 효과도 우수하다.

또 다른 성분인 퀘르세틴은 항산화제 활성이 보고된 성분으로, 단백질 활성을 조절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루틴은 플라보노이드에 속하는 수용성 물질로,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줘야 한다.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혈관 강화, 염증 억제에 도움되는 성분이다. 이들 4대 주요 성분의 경우 특히 제주산 황칠에서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포닌 함량 높아 '나무 인삼' 불려 『중약대사전』 '통증을 멈추게 한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 등도 확인

“것을 보여준다"며 "이로써 쥐 모델에서 식물 추출물의 면역 조절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황칠이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면역 세포 불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연구진은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을 제조해 실험용 쥐에게 용량을 달리해 경구투여한 후 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지표를 측정했다. 그 결과 추출물 투여 쥐의 아토피



기고 김지혜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 유방외과 교수

유방암, 젊다고 방심 말아야... 2030 환자 서구의 2배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여성 암 환자 10명 중 2명이 유방암이다. 특히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환자 비율이 매우 낮은 서양에 비해 국내는 4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이들 중 20~30대 젊은 유방암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11%를 차지한다. 서구의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40세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여성은 암의 조직학적 등급이 높거나 공격적인 유방암 아형이 많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상 여성은 매달 자가검진을 시행하고 35세 이후부터 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엔 1~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

및 유방 촬영을 권한다.

자가검진 중 갑작스럽게 유방에 멍울이 잡히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 경우, 유방 피부 또는 유두가 함몰된 경우, 피부에 발적이나 습진이 나타난 경우, 겨드랑이 림프샘이 만져지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자가검진을 열심히 해도 1cm 이하의 작은 혹은 잘 만져지지 않고 젊은 여성은 유방 조직이 치밀해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젊은 나이라도 유방암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있으면 정밀 검진이 필요한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유방 모양을 보존하면서 암만 제거하는 유방 부분절제술과 암이 있는 쪽의 유방을 모두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로 나뉜다.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통상적인 절개 수술은 가슴 부위 피부를 절개해 눈에 띄는 상처가 남는데,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 아래 3~5cm만 절개한

후 로봇팔을 삽입해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의 크기가 작고 겹으로 드러나지 않아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외에도 가임력 보존과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고려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추후 자녀 계획이 있는 환자는 가임력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방암 종류에 따라 장기간 항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항암 치료 시 난소 독성으로 가임력이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난자 채취 후 정자와 체외수정을 거쳐 배아를 생성해 냉동시켜 보관하는 배아 동결 보존이나 난소 보호 주사를 병행한다.

40세 이전에 진단받은 경우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를 검사한다. 건강보험 공단은 BRCA1·2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검사를 급여 수가로 제공한다.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보유자는 평생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60~80%, 난소암 발생 위험도가 20~40% 높다.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면 예방적 수술로 유방 절제, 난소 난관 절제 등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치매	◆ 어지럼증	◆ 손발 저림
◆ 뇌졸중(중풍)	◆ 이명	◆ 감각이상
◆ 파킨슨병	◆ 불면증	◆ 보톡스
◆ 두통	◆ 수면질환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7700 건물 6층

첨단 장비로 미세 병변까지 조기에 찾아, 상담·치료 신속 진행

센터 탐방

기쁨병원 국제전자시검진센터

장수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팔팔한 날보다 골골대는 날이 더 많다면 장수가 축복일 수만은 없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이다. 다만 건강검진이 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장비의 정확도, 의료진의 전문성에 따라 센터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강운식 기쁨병원 병원장은 "질환을 제대로 감별하지 못하면 방사선 노출이나 비용 지출 등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검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검진 각 과 전문의로 구성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기쁨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과 전문병원이자 종합병원이다.

탈장, 충수염(맹장염), 담석 및 갑상샘, 자궁, 유방 수술 등을 주로 진료하며 피부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프롤로통증치료과 등도 개설돼 있다.

이미 서초 강남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기쁨병원 검진센터는 정확성·안전성을 높인 건강검진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고객들이 늘면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인근 남부티미널 국제전자센터 내로 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해 30일 문을 연다. 2개 층에 총 1500평 규모다.

이곳은 수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섯 가지 특징점을 갖추고 있다. 먼저 최첨단 장비다. 올해만 해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내시경, 초음파 기기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방



기쁨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최신 자기공명영상(MRI) 기기로 정밀하게 병변을 파악한다.

김동하 객원기자

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 기기들이다. 강 병원장은 "해상도가 뛰어나 미세한 병변까지도 조기에 찾아내고 저선량 기술이 적용돼 방사선 피폭량도 비교적 적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의료진의 전문성이다. 기쁨병원 건강검진센터의 모든 검진은 각 과의 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덕분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화기내과와 외과 전문의가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직검사와 용종절제술까지 실시하는 식이다.

검진서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해결

셋째는 안전한 검진 환경이다. 기쁨병원 내시경센터는 여러 대의 내시경 전용 세척소독기를 두고 검사가 끝날 때마다 철저하게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다. 11개의 내시경실뿐 아니라 40여 개 회복실 자리에도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산소 공급장치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 AI 기반 첨단 장비도 환자의 안전을 돕는다.

넷째는 검진의 효율성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검진 항목이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막막

해한다. 그렇다고 잠재하는 질환을 찾아내려 온갖 검사를 받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기쁨병원 건강검진센터는 '10대 암 검진'처럼 꼭 필요한 검사들을 엄선해 프로그램을 짰다. 강 병원장은 "10대 암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10대 암뿐 아니라 부수적인 암까지 15개가 넘는 질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신속한 후속 조치다. 기쁨병원에서는 검진 결과와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진을 바로 연결해 준다. 검진에서 상담, 치료까지 전 과정을 한 병원에

서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충수염 일 땀 3시간 이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갑상샘·부인과 관련 수술에서는 로봇 장비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더욱 정교한 수술이 이뤄지도록 했다.

강 병원장은 "그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혹여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검진센터 가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더 늦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하지수 기자

▶ 1면 '한약'에서 이어집니다

앞선 이유 등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은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약, 침·약침, 추나요법 등으로 이뤄진 한의통합치료는 부작용이 적으며 치료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등 예후가 좋다는 것이 강점이다. 그중 실제 방풍, 우슬, 두충 등의 한약재로 조제한 한약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의통합치료의 장기적인 효과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에 소개된 논문은

따르면,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지방사통이 약 7배 개선됐으며 허리 기능은 약 3.6배 회복된 상태를 유지했다. 치료 효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은 허리디스크 외에도 다양한 질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화불량에도 한의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부작용에 민감한 임산부의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화불량 치료를 위한 한의학의 활용은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세계소화기학회에서도 소화불량에 한의치료를 적용한 연구가 발

표된 바 있는데, 환자 중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은 대조군과 비교해 60%의 호전을 보였다. 더불어 열감과 복부 불편감, 식후 더부룩함 등의 증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한약재로는 진피(陳皮)가 유명하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처방인 '정로환'도 진피 성분이 활용됐다. 정유, 플라보노이드 등 진피의 약효성분은 소화액의 분비와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식체에도 도움이 된다. 환절기마다 일상의 큰 불편함을 안겨주는 알레르기성 비염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맥문동(麥門冬)은 예부터 비염

증상 치료를 위해 널리 활용된 대표 한약재로 조선 왕실의 비방으로 쓰였다고 전해진다.

검증기준 충족한 한약품용 한약재만 사용 과거에는 한약을 먹으면 '흰 머리가 많이 난다'라거나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용 한약재를 개인이 임의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에는 정부의 철저한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만 사용 가능하기에 원재료부터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더구나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한약은 조제도 시범사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서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오랜 시간 의학을 발전시켜왔다. 한의학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발전해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에 전념하고 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한약을 조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확장돼 환자들께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하인혁 부천자연생한방병원 병원장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의학 칼럼

두통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어지럼증

53세 여성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이유로 필자를 찾아 왔다. 환자는 과거에 여러 차례 여러 의원들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환자의 어지럼증은 약 1-2년 전 갑자기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주 일어났다. 어지럼증의 세기도 더욱 심해졌으며, 어지럼증이 한번 올 때면 보통 하루 이틀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다.

어지럼증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과거에 여러번 똑같은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환자의 어지럼증은 주위가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면

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어지럼증과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형태의 두 종류의 어지럼증이였다.

또한 환자는 오랜 동안 편두통을 알아왔으며, 가족 중에도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명 있다고 하였다. 환자의 편두통도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고, 두통의 강도도 매우 심하여 이로 인해 정상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환자의 문제는 보통 빙빙 도는 형태의 어지럼증이 먼저 오고, 그이후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어 함께 나타났는데, 흔하게는 멀미한 것 같이 속이 좋지 않거나 토하기도 하며, 눈이 사물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해지기도 하며, 또한 눈과 귀가 큰 소리나 밝은 빛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두통이 시작되기전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반대로 청력이 떨어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 말하는 것도 어눌 해지고, 눈에서는 물건이 둘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환자가 최근 응급실을 방문하였을때 찍은 뇌컴퓨터 단층촬영에는 비정상 소견이 없었다. 이어서 뇌자기공명영상을 하게 되었고,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종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뇌의 구조적 이상을 배제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사진상에는 흔히 만성 편두통 환자에게 보이는 뇌의 백색질 변화와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환자가 매우 오랜 기간 편두통을 앓아 왔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이었다.

필자는 이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환자의 어지럼증을 편두통의 일부로 나타나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하게 되었다. 흔히 “기저동맥 편두통”으로도 알려진 이 환자의 특이한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요법이 알려져 있다. 물론 이 환자에게도 이를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증상의 상당한 호전을 볼 수 있었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한방 칼럼

환절기 피부 건조와 가려움

봄, 가을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려움, 건조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유독 환절기에 피부건조와 소양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손실량이 커져 피부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겨울철 과도한 실내 난방 ▶뜨거운 물을 사용한 목욕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기후가 합쳐져 피부의 수분 손실량이 가중되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피부의 기능은 체온 조절, 보호, 흡수, 배설, 저장, 재생작용을 한다. 또한 피부는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통로다. 피부가 건강할 때는 내부와 외부를 잘 소통시켜준다. 내부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외부로 잘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피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진다. 내부와 외부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겨 독소가 피부에 축적되게 된다. 피부 소양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런 독소가 넘쳐 내부에 열이 차서다. 피부건조, 발진, 붉은 반점과 피부 소양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피부 면역력이 강한 경우 염증과 상처가 빠르게 회복된다. 피부 면역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양증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상처가 쌓인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태선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소양증의 한방적 원인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오장육부에 과도하게 발생한 열이 피부의 수분을 마르게 한다. 피지 분비를 촉진해 그 열이 피부와 모공에 축적되고 피부건조와 염증을 일으킨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피부 콜라겐층이 30% 이상 떨어져 피부가 마르고 거칠어진다. 이는 노화로 몸의 진액과 혈액이 고갈되는 ‘음허’와 ‘혈허’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입안 건조, 변비, 빈혈과 불안, 불면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소양증의 한방치료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박안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공급하고,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을 감소시킨다. 특히 침치료는 과활성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가려움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다. 폐, 비장,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처방 또한 피부 건조증과 소양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환자의 체질을 파악한 유기적인 한방치료는 스테로이드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피부 소양증 생활수칙

1. 실내 적정 습도 유지: 건조한 공기는 가려움증을 극대화한다. 2. 유산소 운동: 폐기능을 강화하면 땀을 통해 피부밑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피부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3. 과도한 각질 제거 금물! 목욕은 5분만: 장시간 목욕이나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를 보호하는 지방층을 파괴한다. 4. 보습제로 피부 수분 유지: 세수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5. 뜨거운물 사용은 금지: 목욕물은 38도 내외가 적당하다. 6. 충분한 수면 필수: 하루 7시간 충분히 잠을 잔다.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 공급 방법

1. 양배추 보습제: 양배추의 유효 성분은 소염 작용을 하고, 양배추는 피부 해열과 보습에 좋다. 2. 맥문동 팥: 동의보감에는 맥문동의 효능을 ‘사람의 기를 도우며, 심장의 열을 내리게 하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양배추 팥: 양배추를 갈아서 짜낸 즙 2스푼, 풀 1스푼, 달걀흰자를 섞어서 얼굴에 얇게 2-3회 펴바른다.

건강 칼럼

몸속에 돌이? 담석증의 무서움

담석증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15%에서 발병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증상이 복부 통증으로 나타나다 보니 소화불량, 위경련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다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이 있지만, 위내시경 등 위장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담석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담석증 증상은 주로 극심한 상복부 통증이며, 갈비뼈 아래부터, 우측 날개뼈와 어깨로 통증이 퍼지기도 하고, 메스꺼움, 속 쓰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흔히 쓸개로 불리는 담낭은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간 아래 있는데, 간에서 생성된 소화액인 담즙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공복시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와 소화를 돕기 위해 담즙을 배출하며, 담즙은 이동 통로인 담관을 통해 소장으로 흘러내려 간다. 하지만 담낭이나 담관에 담석, 즉 돌이 생기게 되면 담관이 막히거나 담낭 벽이 자극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담즙은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담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나 빌리루빈이 포함되어 고체상태로 굳어지면 담석이 형성된다. 담석의 80%는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비만한 경우, 반대로 급격한 체중 감소도 담석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는 색소성 담석인데, 이 갈색 또는 흑색은 용혈 상태에서 혈액의 분해를 유발하는 빌리루빈이 증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담석증은 특히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한국인들의 담석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담석증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확인이



맹달 아라세
외과 전문의(MD)
LA 할리우드 차병원

가능하다. 추가로 MRI나 담관조영술, CT 스캔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80%는 무증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을 통해 담낭을 제거하는 것이다. 담낭 자체가 제거되지 않으면 담석이 또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담낭 제거는 과거에는 개복수술로 진행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시행해 환자의 부담이 적어졌다. 수술시간이 짧아 대부분 수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하며, 통증이 적고 흉터도 적게 남는다. 회복도 빨라 대부분 2주 정도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간이 음식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담즙을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담낭 제거 후 특별한 식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방, 고가공식품은 피하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 과일, 야채,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 일부 환자들은 복부팽만이나 설사와 같은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 몇 주 안에 증상이 호전된다. 만약 특정 음식과 음료가 이러한 증상을 유발한다면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13.9%	42.9%	2.9%	0.9%
매우물음	양요	노화사막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뼈
좌골신경통

Sciatica

엄지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뻐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힘이 없어 집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혜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니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장이수가 신의 한수

“장이수가 다 살렸다” “4편은 장이수가 주인공” “폴리스 다크 아미(FDA) 최고다”(이상 메가박스 에메앳 실관람 평)...

개봉 13일째 800만 고지를 돌파한 ‘범죄도시4’에서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의 수사를 돕는 장이수(박지환) 캐릭터가 흥행의 일등공신으로 주목 받고 있다. 투자·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6일 ‘범죄도시4’가 이날 오전 8시 누적관객 819만321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이수는 불법 도박장을 하다 마석도에게 혼쭐이 난 1편부터 줄곧 신스틸러였다. 장첸(윤계상)의 칼에 죽은 줄 알았지만 2편에서 살아 돌아왔다. 마석도에게 매번 이용 당하며 “내 아이다” “또 또 못살게 군다” 등 명대사를 냈었다.

4편에선 비중과 함께 활약상도 커졌다. 장이수가 전직을 살려 사이버 도박조직 검거를 위해 필리핀에 가져다 박장을 차리는 과정을 진두지휘한다. 그의 비중을 이치럼 키운 건 ‘범죄도시4’ 각본 초고를 맡은 오상호(49) 작가다. 범죄 실화를 소재로 역울한 피해자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적 복수극 ‘모범택시’(SBS) 시즌 1·2로 시즌제 드라마 성공 사례를 낳은 그다.

지난달 개봉 직후 전화로 만난 오 작가는 “4편에서 장이수는 마동석 다음가는 주인공”이라며 장이수의 매력을 “뒷골목에서 자수성가한 캐릭터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경계에서 자신의 영역을 잘 꾸려가는 생명력이 사랑스럽다”고 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석도가 빌런(악당)을 이길 거란 결말을 다 알고 보죠. 관객을 이야기에 붙들어 놓을 대안을 고민하던 중에 장이수가 생각났어요. 마침 1편에서 장이수가 도박장을 했는데, 그 짓을 계속했을 것 같았거든요.”

오 작가가 ‘범죄도시’ 시리즈에 합류한 계기도 박지환이 노숙자 역할로 웃음을 책임졌던 영화 ‘유체이탈자’(2021)다. 이 영화의 각색을 맡았던



영화 ‘범죄도시4’ (1)에서 제2의 주인공에 꼽히는 전직 조폭 장이수(박지환). ‘범죄도시’ 1편(2017, 2)에선 빌런 장첸(윤계상)의 칼에 쓰러지지만, 2편(2022, 3)에서 부활해 장첸인 척하는 등 극의 재미를 더해줬다. [사진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범죄도시4’ 각본 쓴 오상호 작가는 “장, 사랑스러운 뒷골목 캐릭터 관객 붙들어놓을 대안으로 투입” ‘장이수가 다했다’ 관람평 넘쳐 13일만에 관객 800만 초고속 흥행

그는 “박지환 배우가 연기 스펙트럼도 넓고, 스크린 속 이미지와 달리 책 읽고 사색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유체이탈자’ 제작자이자, ‘범죄도시’ 시리즈를 공동 제작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 작가를 눈여겨 보고 ‘범죄도시4’ 각본을 제안했다.

2021년 ‘모범택시’ 시즌1 대본을 마무리하던 때였다. ‘범죄도시2’(2022)가 개봉하기도 전이다.

이 시기 ‘범죄도시’ 제작진은 3·4편 제작을 동시에 착수했다.

오 작가는 “마동석 형님에 대한 팬심”과 더불어 ‘범죄도시’ 세계관에 특히 끌렸다고 했다. 드라마 ‘모범택시’에선 “법대로 해”라며 비아냥대는 가해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사적 복수에 나선다.

오 작가는 “‘범죄도시’도 ‘고구마’가 없다. 두 작품의



오상호작가

세계관이 미묘하게 같은 토양에 있는 느낌이라 ‘범죄도시’ 제작진과도 말이 잘 통했다”고 말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원안을 토대로 각본가가 초고를 쓰면 마동석이 제작진과 함께 매 장면, 대사 하나까지 반복 검토하며 완성한다. 마동석에 따르면 시나리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살펴보는 ‘신 바이신’ 작업에 하루 12시간씩 꼬박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한다. ‘범죄도시’ 1편은 이 과정을 4~5년에 걸쳐 총 30번, 2편부터 8~10회씩 반복했다.

그 토대가 되는 초고 뼈대를 오 작가가 작성했다. “아날로그 마석도가 디지털 수사하는 코미디”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도박 소재를 택

했다고 한다. “기획자 마동석의 의도와 방향성이 명확해 개발 과정에 시간 낭비가 없었다”고 그는 돌아봤다.

“마동석 선배가 첫 기획 회의 때부터 ‘범죄도시’는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더군요. 수사 과정은 과감히 빼고 그 결과만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여느 형사물보다 허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호흡이 빠른 게 장점입니다. 그만큼 마석도의 액션과 빌런, 장이수 같은 캐릭터의 활약에 집중할 자리가 생기는 거죠.”

오 작가는 시리즈물이 장수하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한 않는다”고 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대중으로부터 신호가 온다. 제작진이 먼저 급격한 새로운 추구를 하거나, 너무 가르치려 들거나, 선불리 교훈을 던지려는 시도는 불리할 수 있다”면서 “언젠가 마석도를 이기는 빌런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옳은지 여부는 관객 평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정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돈**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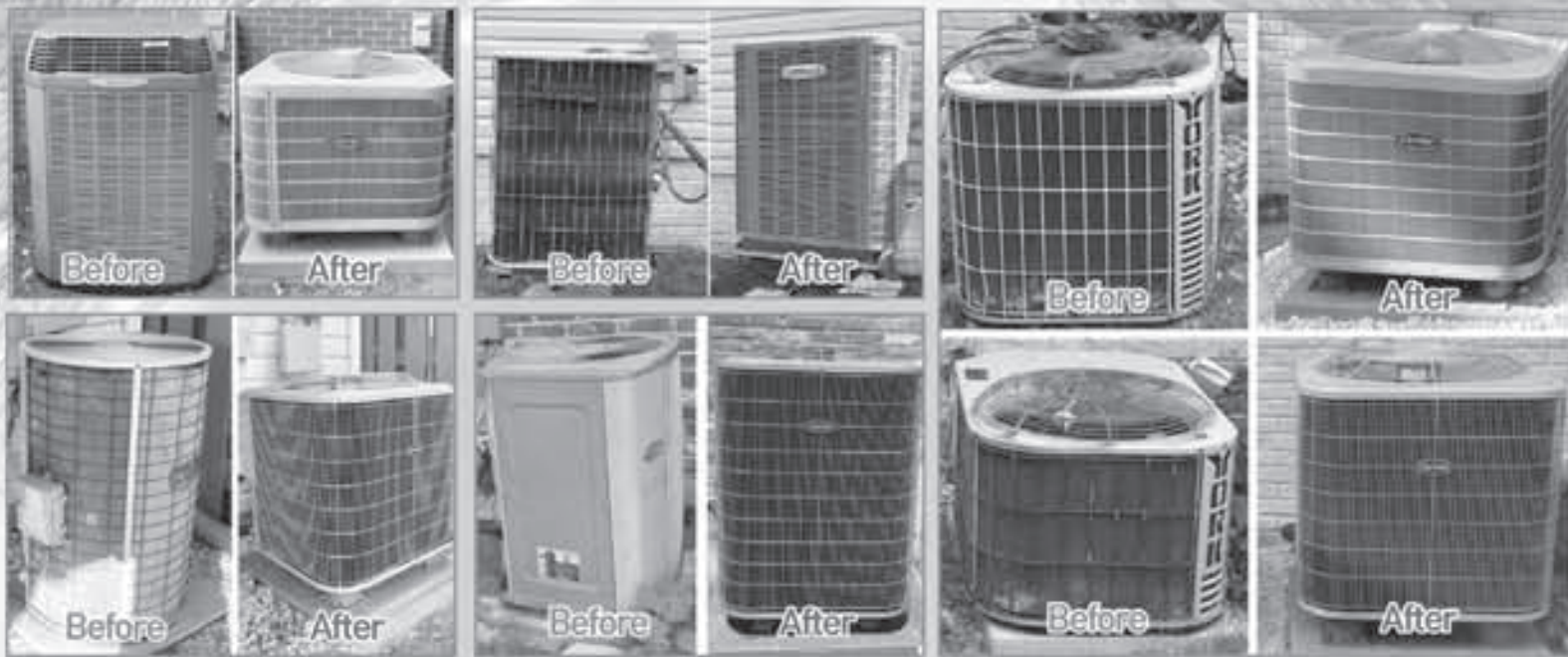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Best of Show, Best of the Best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전기 공사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Golden Dew Jewelry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의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 주택용자
- ▶ 상업용자
-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berta: So how are you getting to the airport on Friday?
 로버타: 그래 금요일에 공항에 어떻게 갈 거야?
 Roger: I'm up in the air about that.
 로저: 아직 결정된 것 없어.
 Roberta: Are you going to take a taxi or a bus?
 로버타: 택시타고 갈 거야 버스타고 갈 거야?
 Roger: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로저: 난 잘 모르겠어.
 Roberta: A taxi will get you there much faster but

it's more expensive.
 로버타: 택시타고 가면 훨씬 빠르지만 더 비싸지.
 Roger: And a bus?
 로저: 버스는?
 Roberta: The bus will be cheaper but it will take you longer to get there.
 로버타: 버스는 더 싸지만 가는데 더 오래 걸릴 거야.
 Roger: So any way I look at it it's going to cost me.
 로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돈이 드네.

anyway you look at it; 어떻게 보더라도

(Roberta is talking to Roger during lunch...)

(로버타가 점심 먹으면서 로저와 얘기한다~)

Roberta: Yes, I would take you but I have a lot on my plate on Friday.
 로버타: 응. 내가 데려다 주고 싶지만 금요일에 내가 아주 바쁠 것 같아.
 Roger: Oh I understand. That's okay.
 로저: 알았어. 됐어.

near the beach."
 (그 여자바닷가 아파트를 임대할지는 미결상태예요.)
 ▶ (one) has a lot on (one's) plate: 할 일이 아주 많다 아주 바쁘다
 "I can't play golf this weekend because I have a lot on my plate."
 (전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 골프를 못 치겠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up in the air: 미결상태다 불확실하다
 "She's up in the air about renting that apartment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눈 내리는 한겨울의 심한 추위 (4)하늘이 맑게 갠 대낮 (7)어린이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포대기 (8)지나간 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풍속이나 양식 (9)상반신은 사람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다는 상상의 바다 동물 (11)사람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가 만나는 경계선의 한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12)어떻게 명년을 기다리냐는 뜻으로, 기다리기가 몹시 지루함을 이르는 말 (14)형의 아내 (15)기체를 넣어 공중으로 높이 떠 올라가게 하는 물건. 행사장 앞을 ~ 아치로 장식했다 (17)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함 (20)눈이 많이 오는 나라나 지방 (21)밤중에 항로의 위험한 곳을 표시해 주는 탑 모양의 구조물 (23)늑사냥의 별명 (25)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 원자 기호는 H, 원자 번호는 1 (26)그림 속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음 (27)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새를 수놓은 이불과 베개

세로 열쇠

(1)엄한 아내를 모시는 그 아래. 아내에게 쥐여 사는 남편의 처지. □□시□ (2)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 입구에 한 그루의 고목나무가 있다 (3)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4)맑은 바람과 밝은 달 (5)백색 인종에 속하는 사람 (6)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됨 (10)글을 쓸 때 사용하는 이름 (13)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 (14)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활용할 수 있어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15)바람 앞의 등불.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16)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함 (18)사람의 머리털이 한곳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부분 (19)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기□□ (22)수많은 사람의 무리. ~을 모아 놓고 연설하다 (24)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혹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이나 동산 (25)받을 돈을 거두어들임

스도쿠

7		8	6		5
9	8			6	2
	3			4	
3			8		4
	7			8	
5		6			9
	6			9	
4	5			2	7
8		2	9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4	9	6	7	2	1	8	8
7	8	7	9	1	9	5	6	4
2	8	2	3	6	1	9	5	6
1	3	1	6	8	4	5	6	2
6	9	3	1	6	8	4	5	8
5	8	4	9	3	6	7	9	5
3	8	5	3	2	4	6	7	1
4	1	6	4	7	8	5	6	2
8	4	7	2	1	9	3	6	9
6	1	2	9	5	3	7	8	4
5	9	3	6	4	8	1	2	7

문	문	응	공		용	ㄹ	운	홍
ㅈ	ㅊ		운	ㅈ	은		ㅈ	을
ㄱ		ㅈ			논	류		문
ㅎ	ㄹ	ㄱ	류		ㅈ		ㅈ	을
	응						ㄱ	
ㅊ	을		류		ㅈ	용	ㅈ	을
ㅈ		ㄹ	용		류		ㄹ	
ㅈ	ㅈ		을	ㅈ	류		ㅈ	을
류	ㅈ	ㅈ	을		ㅈ	류	을	ㅈ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래근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분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율환유 젤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매 **Up to 40% 혜택** 새입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행복한 사연 꼭 보세요 이메일: YP518119@gmail.com Tel. 714-733-3206 "카톡, 텍스트 메시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Dr 박"

돈은 은행에 있다고 사업이 아니지요. 보관과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 유이트 메디칼 그룹 병원 닥터 박입니다. 본인일도하고 당신 돕고 하는 저의 계획은 10만불 2500불, 20만 5000불을 매달 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없이 은행에 돈이 있고 1원도 남에게 주지않고 추라스트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하며 당신이 언제든지 찾아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법으로 단단히 지켜줍니다. 한국에서도 ok 특히나 유학생및 노인은 자기돈 은행에 잘 보관하고 저가 돕는 돈으로 공짜로 몇배 행복한 생활하시면서 살다가 원금을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자식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데 받는것 좋으나 부모를 돌본다는것 그들은 가난해요 효도 없어요. 또한 10만불로 사업하세요. 돈은 가지고 있고 매달 2500불 행운입니다 **1밀리언 되면 10명 되면 접겠습니다. 서로 이런일이 진행되면 집과 돈을도우려 합니다. 모두 모이면 40일후 매달 저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10만 예금 시 \$2,500 매년 \$2.5만 \$20만 예금 시 \$5,000 매년 \$5만 \$1밀리언 예금 시 \$25,000 매년 \$25만

보통 은행 예금처럼 아무때나 원금 찾아가면 됨(계약 없음)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임 학생, 노인등등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준비된 자에게 돕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자에게는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며, 사기도 아니고 마음 믿어준것이 감사합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정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MD의사입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더 나은 생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행복을 주교자 합니다.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